문법 체화서 별책 부록 - 지문형 문법 총정리

<훈민정음 창제>

2004년 4월 전국연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은 세종이 주도하여 창제한 세계적인 문자로서 세계 문자 역사상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됨으로써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훈민정음의 원리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 게리 레드야드는 자신의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자 모양과 기능을 관련시킨다는 착상과 그 착상을 실현한 방식에 정녕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유구하고 다양한 문자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그 글자 모양 자체가 그 소리와 관련된 조음(造音) 기관을 본뜬 것이라니! 이것은 견줄 데 없는 언어학적 호사(豪奢)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소리의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했다는 레드야드의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조음 기관을 본뜬 ㉡기본 글자 다섯(ㄱ, ㄴ, ㅁ, ㅅ, ㅇ)에다 한 획씩 더하는 방식으로 글자를 생성하여 그 글자들이 계열화를 이루게 하였다는 뜻이다. 예컨대 연구개음(여린입천장소리)인 'ㄱ'에 획을 더해 같은 연구개음이되 거센소리 글자인 'ㅋ'을 만들고, 입술소리인 'ㅁ'에 획을 차례로 더해 같은 입술소리이되 새로운 자질(資質)이 더해진 'ㅂ'과 'ㅍ'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로마 문자와 비교해 보면 한글에 함축된 음운학 지식이 얼마나 깊고 정교한지 금방 드러난다. 예컨대 이나 잇몸에 혀를 댔다 떼면서 내는 소리들을 로마 문자로는 'N, D, T'로 표시하지만, 이 글자들 사이에는 형태적 유사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한글은 이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를 'ㄴ, ㄷ, ㅌ'처럼 형태적으로 비슷하게 계열화함으로써, 이 소리들이 비록 자질은 다르지만 소리나는 곳은 같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 준다. 이 말은 이미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소(音素) 단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현대 언어학자들과 같이 음소를 다시 자질로 나눌 줄 알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모음을 생성하는 방식도 매우 과학적임을 알 수 있다.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의 기본자(·, ㅡ, ㅣ)를 만든 후, 이 기본자의 어울림으로 초출자(ㅗ, ㅏ, ㅜ, ㅓ)를 만들고, 이 ㉣단모음 7자를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글자 모양과 소리(이중삼중 모음)를 생성한 것이다. 여기에다 빼놓을 수 없는 한글의 장점은, 모음의 소리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모음은 축약(縮約)의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영어 'A, E, I, O, U'가 각종 단어에서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내는지를 고려해 보면 우리 한글이 얼마나 익히기 쉬운 우수한 문자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글의 참된 가치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뛰어난 것이라도, 우리가 깊이 연구하여 그 가치를 드러내고 나아가 그것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참된 가치를 올바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글은 우리 민족 문화를 뛰어넘어 인류 문화에 빛나는 금자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1)]

① 한글은 의미를 중심으로 글자의 모양이 생성되었다.
② 한글의 자음은 기본자를 합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③ 'ㄴ, ㄷ, ㅌ'은 자질은 같지만 소리나는 위치는 다르다.
④ 영어나 로마자는 글자 모양과 소리값이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⑤ 한글은 음소 단위에서 더 나아가 자질로 나눌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위 글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① 모음의 소리값이 일정하다.
② 모음의 생성 방식이 체계적이다.
③ 자음의 형태와 소리값에 따라 계열화를 이룬다.
④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대응 관계를 이룬다.
⑤ 자음을 조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3.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3)]

① ㉠ :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혀가 휘어지며 소리나는데 그 형태가 'ㄱ'의 모양과 유사하다.
② ㉡ : 기본자 'ㅅ'에 획을 하나 더하여 'ㅈ'을, 'ㅈ'에 획을 하나 더하여 'ㅊ'을 생성해냈다.
③ ㉢ : 하늘(天)의 둥근 모양을 본떠 'ㆍ'를, 땅(地)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그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人)의 모습을 본떠 'ㅣ'를 만들어 이를 모음의 기본자를 삼았다.
④ ㉣ : 'ㅣ'와 'ㅡ'를 결합시켜 'ㅢ'를 만들어내고, 'ㅓ'와 'ㅏ'를 결합시켜 'ㅑ'를 만들어냈다.
⑤ ㉤ : '보아서>봐서, 쓰이어>쓰여, 사이>새' 등이 있다.

4. 위 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 ·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

① 한글의 보급 방식과 전파 경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서적을 찾아보았다.
② 한글이 언어학적 관점에서 우수하다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③ 한글에 나타난 글자의 운용 원리를 다른 나라의 문자 체계와 비교해 보았다.
④ 한글의 우수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닌 일부 외국학자들의 논문을 찾아보았다.
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의해 보았다.

2007년 10월 전국연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세기에 편찬된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는 훈민정음 자음의 명칭을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밝히고,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 글자의 배열은 첫소리(초성)와 끝소리(종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첫소리에만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ㅋ, ㅌ, ㅍ, ㅈ, ㅊ, ㅿ, ㅇ, ㅎ), 가운뎃소리(중성)에만 쓰일 수 있는 열한 자(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뒤로 자음과 모음의 운용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즉 첫소리와 가운뎃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ᄀᆞ)를 보여주고 있고, 첫소리와 가운뎃소리와 끝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각, 간, 갇, 갈, 감, 갑, 갓, 강)를 보여준다.

『훈몽자회』에서는 자음의 이름을 'ㄱ:其役(기역), ㄴ:尼隱(니은), ㄷ:池末(디귿), ㄹ:梨乙(리을)…ㅋ:箕(키)…ㅊ:治(치)…'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 글자인 '其(기), 尼(니), 池(지→디), 梨(리)'는 첫소리에 사용되는 자음의 용례를 보인 것이고, 둘째 글자인 '役(역), 隱(은), 末(귿), 乙(을)'은 끝소리에 사용되는 자음의 용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자음의 이름은 해당 자음이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이면 두 글자로 하고, 첫소리에만 쓰이면 '箕(키), 治(치)'와 같이 한 글자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소리에는 사용되지만 끝소리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한글 자음의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으로 부르는 것은 『훈몽자회』에 나타난 자음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것이다. ㉠ 『훈몽자회』가 현대의 자음 명칭과 다른 것이 있다면 '키, 티, 피, 지…' 등이 '키읔, 티읕, 피읖, 지읒…'으로 바뀐 것뿐이다.

그러면 자음은 어떤 원칙에 의해 순서가 정해졌을까? 『훈몽자회』에는 특별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는 훈민정음에서 기본자 'ㄱ, ㄴ, ㅁ, ㅅ, ㅇ'에 가획된 것을 해당 기본자 뒤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자의 가획 순서는 훈민정음 해례의 조음 위치에 따른 배열순서와 일치한다. 즉 '어금닛소리(ㄱ), 혓소리(ㄴ), 입술소리(ㅁ), 잇소리(ㅅ), 목구멍소리(ㅇ)'의 순서로 배열된다. 이 중 'ㅇ'은 첫소리에만 사용되므로 가획자인 '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ㄴ→ㄷ→ㄹ(가획과 이체)', 'ㅁ→ㅂ(가획)'등과 같은 순서로 배열된다. 첫소리에만 쓰이는 여덟 글자의 순서 역시 같은 원리로 정해졌다. '(ㄱ)→ㅋ', '(ㄴ→ㄷ)→ㅌ', '(ㅁ)→ㅍ', '(ㅅ)→ㅈ→ㅊ→ㅿ(가획과 이체)', '(ㅇ)→ㅎ(가획)' 등의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다.

5. 위 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

① 현대의 자음과 16세기의 자음이 같았기 때문이다.
② 현대로 오면서 새로운 자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③ 16세기의 자음 중, 현대로 오면서 사라진 자음이 있기 때문이다.
④ 현대의 표기법에서는 해당 자음이 받침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⑤ 16세기의 받침 표기 방식과 현대의 받침 표기 방식이 같기 때문이다.

6. <보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일부를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다.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6)]

< 보 기 >

ㄱ는 어금닛소리니 '君(군)'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ㅋ는 어금닛소리니 '快(쾌)'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ㆁ는 어금닛소리니 '業(업)'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ㄷ는 혓소리니 '斗(두)'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ㅌ는 혓소리니 '呑(탄)'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ㄴ는 혓소리니 '那(나)'자 처음 발음되는 소리와 같으니라.

① 『훈몽자회』도 <보기>처럼 한자(漢字)를 이용하여 한글의 자음을 설명하고 있군.
② 『훈몽자회』와 <보기>는 훈민정음 해례의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배열했다고 할 수 있겠군.
③ <보기>는 한글 자음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지만, 『훈몽자회』는 자음의 소리를 설명하고 있군.
④ <보기>보다 『훈몽자회』의 자음 배열순서가 오늘날의 자음 배열 순서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군.
⑤ <보기>와 달리 『훈몽자회』는 첫소리에서만 사용되는 자음과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사용되는 자음을 구분하여 배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7. 위 글과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7)]

< 보 기 >

> 최근 중국에 있는 교포가 중국어를 한글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한자(漢字)는 컴퓨터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자입니다. 수만 자가 넘는 한자를 컴퓨터 자판에 다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글자를 한글처럼 분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글로 중국어 발음만 입력하면 한자로 변환되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예로 등소평의 중국 발음인 '덩샤오핑'을 한글 자판으로 입력하면 화면에 '등소평(鄧小平)'이라는 한자가 나타나는 것을 들고 있다.
> 이 프로그램의 한글 입력 방식은 세벌식이다. 자판 배열이 첫소리는 왼쪽에, 모음은 오른쪽에, 받침은 아래쪽에 했다. '박'이라고 하면 'ㅂ ㅏ ㄱ' 등 세 자판을 동시에 누르는 것이다. 피아노 건반을 동시에 누르는 것과 비슷하다.
> "중국 단둥시(市)에서는 직업학교에서 그의 입력 방식을 쓰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의 한 업체는 저작권을 팔라는 제안도 했다."고 그는 말했다.

① 적은 수의 문자로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효율성을 알려주는 사례로군.
② 한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발음 기호로도 한글을 이용할 수 있겠어.
③ 소리를 첫소리와 가운뎃소리, 끝소리로 분석하여 만든 한글의 과학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로군.
④ 이제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漢字)도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처럼 분해해서 표기할 수 있게 되었군.
⑤ 현대 국어에서는 끝소리가 첫소리로도 쓰일 수 있으니 자판을 두 가지로 배열한 두벌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어.

1999년 수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상 만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언어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의사 전달을 위한 약속의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이 ㉠<u>마음</u>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변화들이 쉴새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그 변화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나) 우리말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말의 이러한 변화는 음운, 어휘, 문법 등 국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다음은 15세기에 쓰여진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서문인데측면에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다) 나랏말ᄊᆞ미 中듕國귁에 달아 文문字쫑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ᄇᆡᆨ姓셩이 니르고져 ᄒᆞᇙ 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ᇙ 노미 하니라 내 이ᄅᆞᆯ 爲윙ᄒᆞ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듧 字쫑ᄅᆞᆯ 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 ᄒᆡᅇᅧ 수ᄫᅵ 니겨 날로 ᄡᅮ메 便뼌安ᅙᅡᆫ킈 ᄒᆞ고져 ᄒᆞᇙ ᄯᆞᄅᆞ미니라

(라) 여기서 ㉡<u>'ᄇᆡᆨ셩, 니르다, ᄠᅳᆮ'</u>은 오늘날에는 각각 '백성, 이르다, 뜻'으로 바뀌었다. 이는 그 동안 음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단어의 모습도 바뀐 것이다. 또, '젼ᄎᆞ'라는 단어는 '까닭'으로, '하니라'는 '많으니라'로 바뀌었는데, 이는 '젼ᄎᆞ, 하니라' 같은 단어들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어린 ᄇᆡᆨ셩'에서 '어린'은 당시에는 '어리석다'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몯ᄒᆞᇙ 노미'의 '놈'도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는 그 동안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예이다.
또, '니르고져'의 '-고져'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데 지금은 '-고자'로 쓰이며, 'ᄒᆞᇙ 배 이셔도'에서 의존 명사 '바'에 주격 조사 'ㅣ'가 붙어 있지만, 지금의 국어에서는 '하는 바가 있어도'처럼 주격 조사 '가'가 쓰인다. 이는 15세기에서 지금에 이르는 동안 문법에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예이다. 이처럼 우리말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를 해 왔다.

8. 윗글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8)]

① 언어 변화의 양상을 알게 되었다.
② 언어 기호의 자의성을 인식하였다.
③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알게 되었다.
④ 표준어 사용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⑤ 한글의 과학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9. (가)의 중심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예는? [2점][9)]

① 광복 이후 우리말 되찾기 운동을 펼쳤다.
②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었다.
③ "차례차례 승차합시다."를 "차례차례 탑시다."로 바꾸어 말한다.
④ 고속 도로의 옆길을 가리키던 말을 '노견'에서 '갓길'로 바꾸었다.
⑤ '계집'은 '일반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의미가 축소되었다.

10. (다)에서 언급하지 <u>않은</u> 것은? [1.6점][10)]

① 새로 만든 문자는 28자이다.
② 당시에도 우리말과 중국어는 달랐다.
③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새 문자를 만들었다.
④ 새 문자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⑤ 당시에는 문자 생활을 할 수 없던 사람이 많았다.

11. 다음의 '마음' 중,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11)]

① 마음이 좋다.
② 마음이 내키다.
③ 마음이 상하다.
④ 마음이 아프다.
⑤ 마음이 가라앉다.

12. ㉡의 'ᄇᆡᆨ셩, 니르다, ᄠᅳᆮ'에 추가할 수 있는 예를 (다)에서 고르면? [1.6점][12)]

① 나라
② 이런
③ 시러
④ 펴디
⑤ 날로

13. 다음 중, 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13)]

① 나랏말ᄊᆞ미 中듕國귁에 달아 ⇒ 文문字ᄍᆞᆼ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② 어린 百ᄇᆡᆨ姓셩이 니르고져 ⇒ ᄒᆞᇙ 배 이셔도
③ 제 ᄠᅳ들 시러 ⇒ 펴디 몯ᄒᆞᇙ 노미 하니라
④ 사ᄅᆞᆷ마다 ᄒᆡᅇᅧ ⇒ 수ᄫᅵ 니겨
⑤ 날로 ᄡᅮ메 便뼌安ᅙᅡᆫ킈 ⇒ ᄒᆞ고져 ᄒᆞᇙ ᄯᆞᄅᆞ미니라

<우리말의 특성>

2005년 수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자는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림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하게 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이다. 표의 문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수가 늘어나 기억하기가 불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훨씬 적으며,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표시 기호로 사용하는 표음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표음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음절 문자와, 더 나아가 자음과 모음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음운 문자로 다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에는 일본의 가나가, 음운 문자에는 영어 알파벳이 있다.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음운 문자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점, 가획을 통해 소리를 자형(字形)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 등 매우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 중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u>㉠ 음운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u> 즉,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ㄱ, ㅋ'과 'ㄷ, ㅌ'에서 추가된 획은 '거센'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질 문자'란 명칭은 자질 자체를 글자로 만든 것에 붙여야 한다. 다시 말해, '거센'이라는 자질이 자형에 반영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자질이 하나의 독립된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글을 완전한 의미의 자질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반드시 문자의 우수성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 자질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사실 각 문자 부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의 문자는 음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쉽다는 장점을, 음절 문자는 실제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더욱이 한글처럼 자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형끼리의 유사성에 의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까지 추가로 가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이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 부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는 흔히 발견된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印度, 伊太利[나라 이름]'처럼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한 글자로 모아 씀으로써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각 단계 문자 부류들이 보여 주는 장점들을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운 문자이므로 효

율적이고,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가 쉬울 뿐 아니라,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장점도 취하고 있는 것이다.

1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14)]

① 표음 문자는 그림 문자보다 발달된 문자다.
② 음절 문자는 음운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
③ 한글은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④ 한자는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한다.
⑤ 문자 발달사 단계와 문자의 우수성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15. 한자와 한글을 대비하기 위하여 위 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ㄱ~ㄷ에 들어갈 말은?[15)]

< 보 기 >

비교 항목	한자	한글
문자 분류	표의 문자	표음 문자 (음운 문자)
자형에 반영된 특성	언급 없음	(ㄱ)
문자 운용에 이용된 특성	(ㄴ)	(ㄷ)

	ㄱ	ㄴ	ㄷ
①	자질 문자	음운 문자	음절 문자
②	음절 문자	음운 문자	자질 문자
③	자질 문자	음절 문자	음절 문자
④	음운 문자	자질 문자	음절 문자
⑤	자질 문자	음운 문자	음운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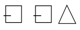
16. <보기>는 ㉠과 같이 한글을 자질 문자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제기했음직한 의문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점][16)]

의문	답
한글은 다른 문자와 비교할 때 어떤 점이 특이한가?	음, 자세히 살펴보니, 'ㄱ'과 'ㅋ', 'ㄷ'과 'ㅌ'처럼 서로 닮은 글자들이 많이 있네. ····· ①
↓	
자형이 소리의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ㄱ → ㅋ'처럼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는 원래 글자와 소리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 위치가 같군. ·· ②
↓	
가획이 음운보다 더 작은 단위인 자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음, 그러고 보니 가획이 '거셈'과 같은 음운 자질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네. ············ ③
↓	
다른 문자 중에서 자형이 자질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까?	'木'과 '林', '日'과 '目'을 보니, 한자도 글자 모양의 차이가 자질의 차이를 반영하는구나. ··································· ④
↓	
자형이 자질을 반영하는 문자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필요한가?	결국 문자들의 차이를 잘 구별해 주려면 별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좋겠어.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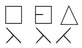
1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도토리]'라는 발음을 적어 보았다. 알맞은 것은? [1점][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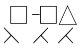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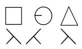
-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게 할 것.
- 모아쓰기를 할 것.

① 

②

③ 

④ 

⑤ 

2003년 10월 전국연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문자는 말의 대용물이요 보조 수단이라고 한다. 문자가 말의 대용물이라는 근거 위에서 소리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 즉 표음(表音)에 충실할수록 좋은 문자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글자와 음소 사이에 1 대 1의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문자는 말의 대용물로서만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소리를 충실하게 나타낼수록 이상적인 문자가 되는 것일까?

문자가 말의 대용물이라는 생각은, 문자를 보면 우선 그것이 나타내는 소리를 머리에 떠올리고 그 청각 영상에 의해서 개념을 파악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문자 생활의 비중이 큰 현대 사회에서 문자는 독립적으로 개념을 전달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가령 '꽃잎'이란 글자를 보면 [꼰닙]이란 소리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고 직접 그것이 가리키는 사물이나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문자가 소리의 매개 없이 직접 개념과 통한다는 이야기다. 문자는 이렇듯 말의 대용물이 아니라 어엿하게 독자성을 갖추고 있는 직접 기호인 것이다. 결국 문자가 표음에 충실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문자로 하여금 직접 기호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길이라면, 문자는 표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우리말에서는 [흘기, 흥만]이라고 발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흙만'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것은 실제 소리와 관계없이 일부러 '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태를 중시하여 표기하는 것은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연관성을 명료하게 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웃어라, 웃더라, 웃는다' 등에서 어간을 '웃-'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어간을 실제 소리에 따라 '웃-, 욷-, 운-'으로 분화시켜 표기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우리말과 같이 조사나 어미가 발달한 언어에서는 시각상의 통일을 위한 표기는 우리말의 특질상 거의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자는 표음에서 벗어나는 대신 시각상의 통일성이라는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우리의 현행 맞춤법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문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 효과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글의 음절 단위 표기 방식(소위 '모아 쓰기')도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효율성은 우선 글자 모양의 집중성에서 온다. 'ㄲㅗㅊ'이나 'ㄱㅜㄹㅡㅁ'과 같이 음소 단위로 풀어 쓰는 것보다는 '꽃'이나 '구름'처럼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것이 시각적인 집중성을 높여 의미 해독을 쉽게 해 줄 수 있다. 더구나 모아 쓰기 방식은 동음이의어를 분별시켜 주는 일에도 기여한다. '반드시~반듯이', '이미 떠났다~임이 떠났다'와 같은 경우 풀어쓰기를 통해서는 시각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모아 쓰기를 하면 구분이 가능해진다.

음소 문자는 문자 발달 과정으로 보면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언어가 가진 특질을 참작하여 적절하게 형태적인 고려를 취하는 것이 문자 표기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이기도 하다.

18. 위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18)]

① 한글의 구성상 특질
② 우리말 표기법의 원리
③ 말과 문자의 바람직한 관계
④ 문자 표기법의 이상적인 방향
⑤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의 차이

1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19)]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상반되는 방식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일부 견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④ 비슷한 현상에 빗대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⑤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20.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

①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는 경우도 있다.
② 영어의 'tree', 독일어의 'Baum', 일본어의 'き'에 대응하는 우리말은 '나무'이다.
③ [ㅐ]와 [ㅔ]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문자를 통해서는 '배'와 '베'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
④ '산'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 그 물리적인 소리는 사람마다 미묘하게나마 다르지만 모두 같은 소리로 받아들여 이해하게 된다.
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saraŋ]이라고 발음하지만, 영어에서는 [lʌv], 독일어에서는 [líːbə], 프랑스어에서는 [amuːr]로 발음한다.

2004년 4월 전국연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은 세종이 주도하여 창제한 세계적인 문자로서 세계 문자 역사상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됨으로써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훈민정음의 원리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 게리 레드야드는 자신의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자 모양과 기능을 관련시킨다는 착상과 그 착상을 실현한 방식에 정녕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유구하고 다양한 문자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그 글자 모양 자체가 그 소리와 관련된 조음(造音) 기관을 본뜬 것이라니! 이것은 견줄 데 없는 언어학적 호사(豪奢)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소리의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했다는 레드야드의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조음 기관을 본뜬 ㉡기본 글자 다섯(ㄱ, ㄴ, ㅁ, ㅅ, ㅇ)에다 한 획씩 더하는 방식으로 글자를 생성하여 그 글자들이 계열화를 이루게 하였다는 뜻이다. 예컨대 연구개음(여린입천장소리)인 'ㄱ'에 획을 더해 같은 연구개음이되 거센소리 글자인 'ㅋ'을 만들고, 입술소리인 'ㅁ'에 획을 차례로 더해 같은 입술소리이되 새로운 자질(資質)이 더해진 'ㅂ'과 'ㅍ'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로마 문자와 비교해 보면 한글에 함축된 음운학 지식이 얼마나 깊고 정교한지 금방 드러난다. 예컨대 이나 잇몸에 혀를 댔다 떼면서 내는 소리들을 로마 문자로는 'N, D, T'로 표시하지만, 이 글자들 사이에는 형태적 유사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한글은 이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를 'ㄴ, ㄷ, ㅌ'처럼 형태적으로 비슷하게 계열화함으로써, 이 소리들이 비록 자질은 다르지만 소리나는 곳은 같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 준다. 이 말은 이미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소(音素) 단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현대 언어학자들과 같이 음소를 다시 자질로 나눌 줄 알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모음을 생성하는 방식도 매우 과학적임을 알 수 있다.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의 기본자(ㆍ, ㅡ, ㅣ)를 만든 후, 이 기본자의 어울림으로 초출자(ㅗ, ㅏ, ㅜ, ㅓ)를 만들고, 이 ㉣단모음 7자를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글자 모양과 소리(이중·삼중 모음)를 생성한 것이다. 여기에다 빼놓을 수 없는 한글의 장점은, 모음의 소리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모음은 축약(縮約)의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영어 'A, E, I, O, U'가 각종 단어에서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내는지를 고려해 보면 우리 한글이 얼마나 익히기 쉬운 우수한 문자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글의 참된 가치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뛰어난 것이라도, 우리가 깊이 연구하여 그 가치를 드러내고 나아가 그것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참된 가치를 올바로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글은 우리 민족 문화를 뛰어넘어 인류 문화에 빛나는 금자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21)]

① 한글은 의미를 중심으로 글자의 모양이 생성되었다.
② 한글의 자음은 기본자를 합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③ 'ㄴ, ㄷ, ㅌ'은 자질은 같지만 소리나는 위치는 다르다.
④ 영어나 로마자는 글자 모양과 소리값이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⑤ 한글은 음소 단위에서 더 나아가 자질로 나눌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2. 위 글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2)]

① 모음의 소리값이 일정하다.
② 모음의 생성 방식이 체계적이다.
③ 자음의 형태와 소리값이 계열화를 이룬다.
④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대응 관계를 이룬다.
⑤ 자음을 조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23.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23)]

① ㉠ :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혀가 휘어지며 소리나는데 그 형태가 'ㄱ'의 모양과 유사하다.
② ㉡ : 기본자 'ㅅ'에 획을 하나 더하여 'ㅈ'을, 'ㅈ'에 획을 하나 더하여 'ㅊ'을 생성해냈다.
③ ㉢ : 하늘(天)의 둥근 모양을 본떠 'ㆍ'를, 땅(地)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그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人)의 모습을 본떠 'ㅣ'를 만들어 이를 모음의 기본자를 삼았다.
④ ㉣ : 'ㅣ'와 'ㅡ'를 결합시켜 'ㅢ'를 만들어내고, 'ㆍ'와 'ㅏ'를 결합시켜 'ㅑ'를 만들어냈다.
⑤ ㉤ : '보아서>봐서, 쓰이어>쓰여, 사이>새' 등이 있다.

24. 위 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4)]

① 한글의 보급 방식과 전파 경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서적을 찾아보았다.
② 한글이 언어학적 관점에서 우수하다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③ 한글에 나타난 글자의 운용 원리를 다른 나라의 문자 체계와 비교해 보았다.
④ 한글의 우수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닌 일부 외국학자들의 논문을 찾아보았다.
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의해 보았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

2005년 12월 예비평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한자의 음을 우리말 단어의 발음 기호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길동'이라는 지명을 적기 위하여 '吉'[길]과 '同'[동]을 끌어와 '吉同'으로 적고 [길동]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자의 음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음차 표기'라 한다. 다른 하나는 한자의 뜻, 다시 말해서 훈(訓)을 빌려와 우리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栗'(밤 율)의 훈으로 [밤]을 나타내고, '峴'(고개 현)의 훈으로 [고개]를 나타내어, '栗峴'으로써 우리말의 [밤고개]를 표기하는 것이다. '栗峴'을 [율현]이라 읽지 않고 [밤고개]로 읽는 이 방법은 한자의 뜻, 즉 훈(訓)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훈차 표기'라 한다.

이러한 단어 중심의 한자 차용 표기는 점차 두 단계에 걸쳐 문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문장 표기의 1단계는 '我愛汝'([아애여], 나 사랑 너)와 같이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중국어식 어순을, '我汝愛'(나 너 사랑)와 같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단계였다. 1단계는 점차 명사와 용언 어간에 각각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는 2단계로 이어졌다. 2단계에 속하는 향가 표기, 즉 향찰은 '我愛汝'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 '我隱 汝乙 愛爲隱如'([아은 여을 애위은여], 나는 너를 사랑하ㄴ다)와 같이 상당히 체계화된 문장 표기 모습을 보여준다. 향찰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하여 대체로 뜻이 중요한 명사나 용언 어간은 '훈차'를 하고, 문법적 기능이 중요한 조사나 어미는 '음차'를 함으로써, 한 어절의 표기가 '훈차+음차'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역사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를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문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새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자 차용 표기를 알고 있던 세종대왕은 왜 일본과 달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어와 우리말이 갖는 음절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찾는다. 일본어는 음절이 간단하여 한자로 표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50개 정도면 충분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곳], [닫]과 같이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음절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 수도 2,000개 이상이 필요하였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보인다.

25.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u>않는</u> 것은? [1점][25)]

① 훈차에서 한자 한 글자는 우리말 음절 하나와 대응되었다.
② '愛爲隱如'(사랑하ㄴ다)의 '爲'(할 위)는 훈차 표기 방법을 따랐다.
③ [곳], [닫]과 같은 음절은 한자 한 글자로 음차 표기할 수가 없었다.
④ '坪村'을 [평촌]으로 읽으면 음차가 되고, [벌말](벌마을)로 읽으면 훈차가 된다.
⑤ 한자 차용 표기는 '단어 표기 → 문장의 어순 조정 → 조사와 어미의 첨가' 순서로 전개되었다.

26.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26)]

① 향찰에서 보조 성분의 어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② 한자 차용 표기가 고려 시대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아서
③ 한자로는 조사나 어미의 문법적 기능을 잘 드러낼 수 없어서
④ 한자 차용 표기로는 우리말의 소리를 충분히 표기할 수 없어서
⑤ 한자 차용 표기에서 음차는 문제가 없었지만, 훈차는 문제가 많아서

27. <보기>의 설명 중, 위 글로 미루어 타당한 것끼리 묶인 것은?[27)]

< 보 기 >

ㄱ. 고대에 우리말과 중국어의 발음은 달랐으나 어순은 비슷했다.
ㄴ. 어떤 언어 공동체의 문자와 표기는 그 공동체의 언어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ㄷ. 한자 차용 표기에서 '훈차+음차' 표기의 단위는 현대 국어 맞춤법의 띄어쓰기 단위와 관련이 깊다.
ㄹ. 현대 일본의 문자와 표기는 그들의 한자 차용 표기를 계승한 것이므로 향찰과는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 <보기>의 우리말을 영어와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활용하여 향찰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서 읽는다고 할 때, 쓰기와 읽기의 방법이 올바른 것은?28)

< 보 기 >

[나는 너를 사랑한다]

* 국어 로마자 표기법

ㄴ	ㄷ	ㄹ	ㅂ	ㅅ	ㅇ	ㅎ	ㅏ	ㅓ	ㅠ	ㅡ	ㅣ
n	d	r, l	b	s	ng	h	a	eo	yu	eu	i

	<쓰 기>	<읽 기>
①	I-*neun* YOU-*reul* LOVE-*handa.*	[na-*neun* neo-*reul* sarang-*handa*]
②	na-*neun* neo-*reul* sarang-*handa.*	[I-*neun* YOU-*reul* LOVE-*handa*]
③	I-*neun* LOVE-*handa* YOU-*reul.*	[I-*neun* LOVE-*handa* YOU-*reul*]
④	ai-*neun* yu-*reul* reobeu-*handa.*	[na-*neun* neo-*reul* sarang-*handa*]
⑤	I-*neun* YOU-*reul* LOVE-*handa.*	[ai-*neun* yu-*reul* reobeu-*handa*]

<통시적 문법 - 역사성>

2003년 3월 전국연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소리는 변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변하기도 한다. 또, 개인에 따라 발음을 달리하기도 한다. 말소리가 변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화라고 한다. 이러한 음운의 변화를 더 자세히 구별하면 통시적(通時的)인 것과 공시적(共時的)인 것으로 나뉜다. 흔히, 통시적인 변화를 'ⓐ변천(變遷)'이라 하고, 공시적인 변화를 '변동(變動)', 또는 '변이(變異)'라 한다.

일반적으로, 통시적 음운 변화는 변화의 성격상 자생적(自生的) 변화와 결합적(結合的) 변화로 대별된다. 자생적 변화란, 음운 자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변하는 것이며, 결합적 변화란 음운의 환경이나 음운이 결합되는 조건 등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이다. 공시적인 음운 변화도 마찬가지로 자생적 변동과 결합적 변동으로 나뉜다. 그러나 공시적인 변동의 경우는 대부분이 결합적 변동이고, 자생적 변동은 많지 않다.

결합적 변동은 다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적(決定的) 변동과 임의적(任意的)으로 일어나는 ⓒ수의적(隨意的) 변동으로 나뉜다. 음운은 일정한 환경 아래에서는 예외 없이 일정한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비음(鼻音) 앞에 오는 /ㄷ/은 예외 없이 /ㄴ/으로 변하는 것이 결정적 변동의 예이다. 반면, 특수한 경우에만 바뀌는 것이 있는데, 불규칙 활용의 경우 음운 변동은 경우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수의적 변동에 해당한다.

(나) 음운 변화는 현저한 규칙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규칙성은 언어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 원칙이 되어 왔다. 음운 변화는 흔히 조건(條件) 변화와 무조건(無條件) 변화로 분류되어 왔다. 어떤 음의 변화가 그 인접어(隣接語)의 영향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때 이것을 ㉠조건 변화라 하며 이런 조건 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무조건 변화라고 한다. 조건 변화에는 동화(同化), 이화(異化) 등이 있다.

동화는 어떤 음의 영향으로 다른 음이 그것과 닮게 되는 현상으로 ⓓ앞의 음이 뒤의 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순행 동화)와 ⓔ그 반대의 경우(역행 동화)가 있으며 또 이들 두 음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인접 동화)와 떨어져 있는 경우(원격 동화)가 있다. 국어에서 몇 예를 들면, 근대 국어에서 양순 자음 뒤의 'ㅡ'가 'ㅜ'로 변한 것은 순행 인접 동화, 중세 국어에서 'ㄴ' 위의 'ㄷ'이 'ㄴ'으로 변한 것과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역행 인접 동화의 예이다. 이화의 예는 매우 드물다. 국어에서는 고대의 'ᄒᆞᄅᆞᆯ[一日]', 'ᄆᆞᄅᆞᆯ[棟]' 등이 중세 국어에서 'ᄒᆞᄅᆞ', 'ᄆᆞᄅᆞ' 등이 된 것이 이화의 예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음운 도치도 이화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조건 변화가 부분적임에 대하여, 무조건 변화는 전반적이다. 가령 중세 국어에서 전기와 후기 사이에 일대 모음 추이(推移)가 일어난 것은 무조건 변화의 한 예이다. 한 음소가 분화하여 두 음소가 되든가, 두 음소가 합류하여 한 음소가 되든가, 음소들의 대립 관계가 새로워지든가 해서 음운 체계에 변천이 일어나는 것이다.

2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9)

① (가)와 (나) 모두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중심 화제로 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어휘를 중심으로, (나)에서는 음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국어의 구체적 특징을, (나)에서는 언어의 보편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통시적 · 공시적 변화를 함께 다루고, (나)에서는 통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3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30)

① 동화와 이화는 조건 변화에 해당한다.
② 음운 변화는 개인차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③ 공시적인 음운 변화는 주로 결합적 변화이다.
④ 불규칙 활용에 나타나는 음운 변화는 자생적 변화이다.
⑤ 중세 국어에서 모음 추이가 일어난 것은 무조건 변화이다.

31. (나)의 ㉠과 의미가 같은 것을 (가)에서 찾으면?[31)]

① 음운의 변화
② 통시적인 변화
③ 공시적인 변화
④ 자생적 변화
⑤ 결합적 변화

32. ⓐ~ⓔ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예로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32)]

① ⓐ : 중세어 'ᄀᆞᅀᆞᆯ[秋]'이 현대어 '가을'로 바뀌었다.
② ⓑ : '쏟는다'는 /ㄷ/이 /ㄴ/ 소리로 변하여 【쏜는다】로 발음된다.
③ ⓒ : '묻다[埋]'는 '묻어', '묻으니' 등으로 활용하지만, '묻다[問]'는 모음 앞에서 '물어', '물으니' 등으로 활용한다.
④ ⓓ : 중세어 '믈[水]'은 근대 국어에 와서 'ㅡ'가 'ㅜ'로 바뀌어 '물'이 되었다.
⑤ ⓔ : '불능(不能)'은 /ㄴ/이 /ㄹ/ 소리로 변하여 【불릉】으로 발음된다.

2009년 6월 모의평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해 전 경북 안동의 묘에서 16세기에 쓰인 한글 편지가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절절한 애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시대에 쓰인 옛 한글 편지를 '언간(諺簡)'이라 한다. 언간은 우리말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시 언중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 자료이다. 지금까지 많은 언간이 전해지지만 사대부 간에 주고받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언간의 특징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언간이 당시 자료인 언해(諺解)*에 보이는 문체적 특징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이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17세기 언해 자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그 어미와 밋 ᄉᆡ어미로 더브러(與其母及姑)' 부분을 보면,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밋'이 더 들어 있다. 또한 '밤 들매 미처 ᄀᆞ마니 나가'라고 해야 할 것을 '밋 밤 들매 ᄀᆞ마니 나가(及夜間潛出)'라고 하여 어순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언간은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 자내 여히고 아ᄆᆞ려 내 살 셰 업ᄉᆞ니 수이 자내ᄒᆞᆫᄃᆡ 가고져 ᄒᆞ니 날 ᄃᆞ려 가소 자내 향히 ᄆᆞᄋᆞᆯ ᄎᆞᆼ싱 니ᄌᆞᆯ 주리 업ᄉᆞ니
> (자네 여의고 아무래도 내 살 수가 없으니 빨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네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줄이 없으니)

위에서 보듯이 아내가 남편한테 '자내'라는 호칭어를 쓰면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사'에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한 '한테'의 옛 형태인 '한ᄃᆡ'가 이미 16세기 언간에서부터 쓰이고 있었고, 'ᄒᆞ여'가 'ᄒᆡ'로 축약된 어형이 언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구어적 성격은 다른 언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체후 일힝 만안ᄒᆞ옵신지 벵 복모 간절ᄒᆞ옵고 …… 자셔한 말심을'에는 당시 중앙어의 일반적인 어형인 '일향(一向)', '병(竝)', '말숨' 등과 비교할 때,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에도 방언형이 등장한다.

이 밖에 언간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의 효율성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재점)을 이용한 표기이다. ㉠<u>'총〃 그만 긋치압', '더옥〃 근심코 인노라', '너희나 가 보고쟈〃 ᄇᆞ라ᄂᆞ니', '부ᄃᆡ〃 잘 지ᄂᆡ여라', '황송〃 ᄒᆞ오이다'</u>에서 재점은 각각 '총', '더옥', '보고쟈', '부ᄃᆡ', '황송'을 반복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략 표기이다. 오늘날 '바빠'의 의미에 해당하는 '밧바'를 '밧'으로, '잠깐'으로 써야 할 것을 '잠'으로 쓰기도 한다. 또한 언간의 끝을 '이만 적ᄉᆞᆸ'으로 하거나 '여의치 못ᄒᆞ옵'을 '여의치 못'으로 쓰기도 한다.

* 언해 : 한문을 한글로 풀어 쓴 글.

33. '언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33)]

① 언해보다 원문의 간섭과 제약이 컸다.
② 언해에 비해 우리말 어법에 부합했다.
③ 주로 공적인 목적으로 쓰였다.
④ 대화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다.
⑤ 남성들이 주로 창작하였다.

34. <보기>는 오늘날 편지의 일부이다. 위 글과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34)]

< 보 기 >

ⓐ자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 그지없었네. 십 년 전을 떠올리며 자네ⓑ한테 걸었던 기대를 다시 생각해 보았네. 앞으로도 목표를 ⓒ향해 정진할 것을 믿네. 부모님께도 안부 ⓓ말씀을 전해 드리게.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적겠네.

2008년 ○월 ○일 홍길동

① ⓐ는 오늘날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사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② ⓑ는 오늘날에도 구어적인 말투에 더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
③ ⓒ와 같이 축약된 형태의 말이 일찍이 언간에서도 확인된다.
④ ⓓ는 언간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말심'으로 쓰였을 것이다.
⑤ ⓔ는 언간에서 종결형 어미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35. ㉠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5)]

< 보 기 >

언간에 사용된 재점은 글자나 단어가 반복될 때 다시 쓰는 번거로움과 운필(運筆)의 노력을 덜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① 총〃 그만 긋치압
② 더옥〃 근심코 인노라
③ 너히나 가 보고쟈〃 ᄇᆞ라ᄂᆞ니
④ 부듸〃 잘 지ᄂᆡ여라
⑤ 황송〃 ᄒᆞ오이다

2012년 3월 전국연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인 근대 국어에서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는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현재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ǐ'*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이 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래 구개음화란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국어사에서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ǐ' 앞에서 'ㄷ, ㅌ, ㄸ'이나 'ㄱ, ㅋ, ㄲ'이 구개음인 'ㅈ, ㅊ, ㅉ'이 되고, 그 밖의 몇몇 자음이 같은 조건에서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모두 포괄한다.

구개음화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남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824년에 나온 유희의 『언문지』에는 당시 사람들이 'ᄃᆢ며'나 'ᄐᆢ며'를 '쟈져'나 '챠쳐'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관서 지방 사람들만이 '텬(天)'과 '쳔(千)', '디(地)'와 '지(至)'를 구분하여 발음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평안 방언을 제외한 여러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되면서 '디, 댜, 뎌, 됴, 듀'와 '티, 탸, 텨, 툐, 튜' 등과 같은 결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구개음화가 진척된 이후에 '듸, 틔'가 '디, 티'로 변하면서 이 형태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듸, 틔'가 구개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ㄷ, ㅌ'의 구개음화는 'ㅈ, ㅊ'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을 전제로 한다. 중세 국어에서 'ㅈ, ㅊ'은 원래 치음이었는데, 이것이 모음 'ㅣ'나 반모음 'ǐ' 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한 뒤에야 'ㄷ, ㅌ' 등의 구개음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ㅈ, ㅊ'이 모음 'ㅣ'나 반모음 'ǐ' 앞에서만 구개음으로 변하다가 'ㅈ, ㅊ'을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자, 저, 조, 주'와 '쟈, 져, 죠, 쥬'의 변별적 차이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19세기 문헌에서는 '자'와 '쟈', '저'와 '져' 등이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구개음화는 이 밖에 'ㅣ'나 반모음 'ǐ' 앞에 오는 'ㅅ'이나 'ㄴ' 등에서도 나타났다. 어두에서 모음 'ㅣ'나 반모음 'ǐ'에 선행한 'ㄴ'의 탈락은 구개음화된 'ㄴ'을 어두에서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대략 18세기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문헌을 보면 '님금'이 '임금'으로 '니르다'가 ㉠'이르다'로 표기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19세기에 오면 이러한 어두에서의 'ㄴ' 탈락이 일반화된다.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굳'과 '이'가 합쳐진 '굳-이'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티다'가 ㉡'치다'로 변한 것과 같이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는 공시적으로 파악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구개음화는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 반모음 'ǐ': 'ㅏ, ㅓ, ㅗ, ㅜ'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를 만드는 소리.

36. 위 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36)]

① 국어의 구개음화는 어떤 음운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가?
②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③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적 분포는 어떠한가?
④ 'ㅈ, ㅊ'의 구개음화와 'ㄷ, ㅌ'의 구개음화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는가?
⑤ 현재 'ㄷ, ㅌ'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디, 티'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7]

① ㉠과 ㉡에는 모두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구개음화되어 나타나 있다.
② ㉠과 ㉡은 모두 모음 'ㅣ'의 영향으로 인해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었다.
③ ㉠과 ㉡은 모두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뀌었다.
④ ㉠은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은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⑤ ㉠은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고, ㉡은 일부의 음운에서만 특수하게 일어난 사례이다.

3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38]

< 보 기 >

ⓐ 뎌(저) 네 아ᄃᆞ른 어딜어늘(어질거늘) 내 아ᄃᆞ리 비록 ᄆᆞ디라도(맏이라도) …… 王이 네 아ᄃᆞᄅᆞᆯ 내티쇼셔(내치소서)

– 『월인석보』 중에서 –

ⓑ 그ᄃᆡ 살고 ᄂᆡ가 죽으면 저 ᄌᆞ식을 키울 거슬 ᄂᆡ가 살고 그ᄃᆡ 죽어 져(저) 자식 엇지(어찌) 키잔 말고 ᄋᆡ고 ᄋᆡ고 모진 목숨 …… 어린 자식 엇지ᄒᆞᆯᄀᆞ(어찌할까)

– 『심청전』 중에서 –

※ ( ) 안에는 해당 단어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 현재의 표기 형태를 밝혀 준 것임.

① ⓐ의 '뎌'와 ⓑ의 '져'가 같은 단어이지만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가 ⓑ보다 앞선 시대의 자료임을 알 수 있어.
② ⓐ의 '뎌', '딜', '디', '티'에서 'ㄷ'과 'ㅌ'이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것으로 보아, 이 음절의 초성 'ㄷ'과 'ㅌ'이 당시에는 구개음이었음을 알 수 있군.
③ ⓑ의 '져', '지', '진'에서 'ㅣ'나 반모음 'ㅣ' 앞에 'ㄷ'이 나타나지 않고 'ㅈ'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는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된 후의 자료로 추정할 수 있어.
④ ⓑ의 '저'와 '져'는 같은 단어인데 그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ㅈ'을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어.
⑤ ⓐ의 '어딜어늘'과 ⓑ의 '모진'이 현재 '어질다', '모질다'라는 기본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에 나타난 구개음화 현상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군.

<통시적 문법 중 합성법 - 역사성>

2011년 수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샅샅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 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된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낯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밉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어둑새벽', 그리고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디쥐>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뿣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뿣>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뿣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39.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39]

① 본래 단일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② 결합되는 단어의 수는 합성어의 유형 구분에 기준이 된다.
③ 구(句)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은 품사가 바뀌는 언어 변화를 겪었다.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40. <보기>와 ㉠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0)

< 보 기 >

[15세기] 그 새 거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석보상절』 권 24)
[오늘날] 그 새가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① '귀엣말'의 '귀엣'과 '거우루엣'은 그 짜임새가 같군.
② 15세기에는 '거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였겠군.
③ 15세기라면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句)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군.
④ '거우루엣'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의 '에'와 같은 기능을 하는군.
⑤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겠군.

41.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41)

바꿀 말	재료가 되는 말	방법	가상의 순화어	
샤프펜슬	○가락 ○빼빼하다 ○연필	ⓐ	가락연필	……①
		ⓑ	빼빼한연필	……②
스캔하다	○읽다 ○갈무리하다	ⓒ	읽어갈무리하다	……③
스파게티	○부드럽다 ○새큼달큼하다 ○국수	ⓓ	부드럽국수	……④
		ⓔ	새큼달큼국수	……⑤

<통시적 문법 중 파생법 - 역사성>

2011년 3월 전국연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생어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인 어근과,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인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파생어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파생어의 의미가 이와 같이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의 합으로 예측될 때,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파생어의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규칙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파생어 '걸레질'은 그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한 좋은 사례가 된다. 이 파생어의 의미는 그 어근인 '걸레'의 의미와, 동작이나 행동을 이르는 말인 접사 '-질'의 의미로부터 쉽게 예측될 수 있다. 하지만 파생어의 의미가 항상 규칙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비질'은 '곡식의 검부러기, 먼지 따위를 날리려고 키 따위로 부쳐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는 곤충인 '나비'의 의미와 '-질'의 의미의 단순한 합이라고 볼 수 없다.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어근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다의어인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어근의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어에 그대로 다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어근 '먹-'과 접사 '-이'가 결합된 말인 파생 명사 '먹이'의 경우를 보면, '먹다'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반면, '먹-'과 접사 '-이'의 결합형인 '먹이'의 의미는 '동물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어야 할 거리'나 '사육하는 가축에게 주는 먹을거리'로 한정된다. 이러한 예를 보면 파생어의 의미가 어근의 모든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파생어의 의미는, 어근의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위의 '먹이'의 경우를 보면, '먹이'의 의미는 '먹다'의 기본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단어의 중심적 의미로, 어떤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제시되는 의미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편, 어근의 의미 중 반드시 하나만이 파생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길다'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 '이어지는 시간상의 한 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동안이 오래다.' 등의 의미를 갖는데, '길이'는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와 '어느 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등의 의미를 갖는다. '길다'의 여러 의미가 파생 명사인 '길이'의 여러 의미에 반영된 것이다.

42. 위 글의 내용상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42)

파생어의 의미 도출 원리와 합성성 원리 준수의 개념
⬇
[A]
⬇
어근의 의미가 파생어의 의미에 반영되는 양상

① 합성성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
② 합성성의 원리를 분석하는 여러 이론 검토
③ 합성성의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④ 합성성의 원리 준수 여부에 따른 파생어의 양상
⑤ 합성성의 원리에 기초한 어근의 의미 변화 설명

[43~44] <보기>와 관련하여 43번과 44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 국어대사전 검색

풀이

「1」 모르거나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밝히어 말하는 일.
「2」 어떤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어 내는 일. 또는 그 결과.

풀다

「1」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2」 어떤 감정이나 분노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3」 마음에 맺혀 있거나 품고 있는 것을 이루다.
「4」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

-이

「1」 (몇몇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43.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3)

① '풀이'의 의미는 '풀다'의 의미 「1」 ~ 「4」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풀이 「1」'은 어근과 접사의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③ '풀이'의 '-이'는 '먹이'의 '-이'와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
④ '풀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⑤ '풀다'에서 '풀-'은 다의적인 어근이다.

44.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4)

① 접사의 의미가 파생어의 의미를 확장시킨 사례로 제시한다.
② 파생어의 의미에 의해 어근의 의미가 결정된 사례로 제시한다.
③ 접사의 의미가 파생어의 의미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로 제시한다.
④ 파생어에서 어근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사례로 제시한다.
⑤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가 파생어의 의미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로 제시한다.

<우리말의 정비 - 주시경>

2007년 9월 모의평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힌샘 주시경은 국어학자이면서 국어 교육자이다. 그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국어 연구를 통해 국어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켰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맞춤법의 통일 같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국어학자로서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국어학 연구에서, 그는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문법 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으로 체계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순수 고유어를 사용하여 학술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거나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연구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특히 '늣씨'와 '속뜻'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단어를 뜻하는 '씨'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면서 여기에 '늣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컨대 '해바라기'를 '해^바라^기', '이더라'를 '이^더라'처럼 늣씨 단위로 분석했다. 이는 그가 오늘날 '형태소'라 부르는 것과 유사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1930년대에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또한 그는 숨어 있는 구조인 '속뜻'을 통해 겉으로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을 분석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의 계층적 구조는 그림을 그려 풀이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 언어학의 분석적인 연구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주시경은 국어학사에서 길이 기억될 연구 업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그는 언어를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보았으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말과 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국어 교육에 온 힘을 다하였다. 여러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국어 강습소를 만들어 장차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그의 국어학 연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면, 주시경은 '한글'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그는 맞춤법을 확립하는 정책에도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모임을 만들어 맞춤법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1907년에 설치된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한글 맞춤법'도 일찍이 주시경이 취했던 형태주의적 입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45. 중심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서술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45)

① 중심 화제의 위상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중심 화제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③ 중심 화제의 의의를 권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중심 화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⑤ 중심 화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46. 주시경의 국어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46)

① 고유어를 활용하여 학술 용어를 창안했다.
② 문장의 계층적 구조를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③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장의 구조를 밝히려 했다.
④ 단어보다 더 작은 문법 단위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⑤ 단어의 의미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려 했다.

47. 위 글에 근거하여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7)

① 주시경이 국어 문법을 가르친 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국어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이유도 있었겠구나.
② 주시경이 국어 연구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까닭은 서구 언어학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겠구나.
③ 주시경이 국어 보급에 앞장선 까닭은 국어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구나.
④ 주시경의 연구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까닭은 당시에 과학적 국어 연구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겠구나.
⑤ 주시경이 선구적인 인물인 까닭은 그가 독자적으로 문법 체계를 세웠을 뿐 아니라 그의 연구가 후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겠구나.

48.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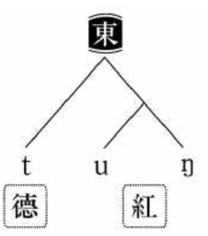
①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집이', '집을'처럼 적는다.
② 불규칙 용언 '돕다'의 경우 '도와', '도우니'처럼 적는다.
③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경우 '소나무', '바느질'처럼 적는다.
④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짤막하다', '널따랗다'처럼 적는다.
⑤ '-이'나 '-음' 이외의 접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경우 '마개', '마감'처럼 적는다.

<한글 표기법>

2012년 수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 역관들에게는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히 익히는 일이 중요했다.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 사전인 운서(韻書)에서 한자음을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이를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는 반절법을 사용했다. 아래 그림처럼 한자 '東'(동)의 발음을 중국의 운서에서는 반절법에 의해 '德'(덕)의 초성 [t]와 '紅'(홍)의 중·종성 [uŋ]을 이용해 표시했다. 이때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도 있었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발음 표시 방식은 조선의 역관들이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반면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에서는 한글로 발음을 표시했고,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 수 있었다. 『사성통해』에서는 한자 '東'의 발음을 한글 [둥]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음소 문자인 한글의 표음성을 이용해 중국의 한자음을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반절법과 달리 한자의 발음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으로, 이때 한글은 일종의 발음 기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글의 표음성은 별도의 발음 기호가 없었던 시대에는 매우 유용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발음 기호와 완전히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 우리가 영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기 위해 사전의 발음 기호를 참조하는 것은 일반 문자와 발음 기호가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알파벳에 비해 표음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한글의 경우에도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음 문자는 언어의 음성적 차원이 아닌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 이를테면 '부부[pubu]'의 경우 음성적 차원에서 무성음 [p]와 유성음 [b]로 발음하는 것을 음소적 차원에서는 모두 'ㅂ'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가 국어 화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가구'의 'ㄱ', '다도'의 'ㄷ'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한글의 표음성은 국어 화자들의 '예민한 귀'보다는 '지혜로운 머리'에 맞춰진 합리성을 보여 준다.

4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49]

①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자를 이용해 표시했었다.
② 『사성통해』에서는 반절법으로 한글의 발음을 표시했다.
③ 조선 시대 역관들의 외국어 학습에서도 한글이 사용되었다.
④ 조선 시대 한글은 한자에 대한 발음 기호의 역할도 수행했다.
⑤ 이상적인 발음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50. ㉠의 이유를 추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0]

① 반절 표시에 사용된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모르면 읽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② 어떤 한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질 때에는 그 발음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③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④ 동일한 한자의 반절 표시에도 다양한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⑤ 두 한자의 발음을 조합해야 전체 발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5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51]

< 보 기 >

일반 문자와 달리 국제 음성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다음은 같은 말소리를 한글과 국제 음성 기호로 표기한 것이다.

A : [고 궁 이 크 다]
B : [ko guŋ i khɨ da]

① A와 B를 비교해 볼 때 한글의 표음성은 음소적 차원과 관련되는군.
② A는 일반적인 문자 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을 B보다 잘 반영하는군.
③ A의 'ㄱ'은 B에서 두 개의 기호에 대응하지만 두 기호의 출현 환경은 같군.
④ A의 'ㅇ'은 B를 참조해 볼 때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군.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했다는 점에서 A에 비해 표음성이 낮군.

<한자, 한글 병기>

2011년 6월 모의평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서적의 간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적을 간행할 때에 서적의 내용과 간행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었다.

한글 창제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하지만 세 문헌은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상정한 예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는 '海東六龍이 ᄂᆞᄅᆞ샤'에서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다. 이것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솅世존尊'에서처럼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었고, 『석보상절』은 '世솅尊존'에서처럼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행하여 적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는 공통적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자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독자층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구를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달랐다.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앞의 세 문헌보다 후대에 간행된 『두시언해』와 『백련초해』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방식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는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책인데, '東녀그로 萬里예'에서 보듯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시언해』가 두보의 시를 한문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련초해』는 원문의 시는 한자로 적고 각 한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으며, 번역문은 순 한글로 적고 있다. 이는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백련초해』는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 한글로만 적는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52)]

① 『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한글로 밝혀 적는 방식을 채택했다.
②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③ 『석보상절』은 서로 다른 부류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기했다.
④ 『두시언해』는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다.
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53.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의 원리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한 것은?[53)]

< 보 기 >

한글과 한자는 음절 단위로 끊어 적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같지만 문자를 운용할 때에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글과 알파벳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① London에 살아요.　② 런던(London)에 살아요.
③ London(런던)에 살아요.　④ Lon런don던에 살아요.
⑤ 런Lon던don에 살아요.

54. ㉡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보기>의 주장을 도입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54)]

< 보 기 >

국어에는 [f]에 해당되는 음이 없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영어의 'file'과 같은 단어를 '파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ㅍ'의 발음이 [f]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적인 기호 'ㅇ'을 사용하여 'ᄫ'을 만들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① 외국어의 다양한 문자를 적기 위해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
② 표기하려는 음이 국어에 없는 음이므로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③ 외국어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통일되므로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국어의 문자 생활이 편리해진다.
⑤ 영어의 file을 '파일'로 적게 되므로 국어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다.

<어원 탐구>

1996년 수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어원(語源)에 대한 관심에서 싹튼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김대문(金大問)의 어원 연구가 국어사 연구의 첫 업적이었다. '차차웅(次次雄)', '이사금', '마립간(麻立干)' 등에 대한 그의 어원 해석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인용되어 있음을 본다. 그 뒤에도 어원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러나 전통적인 어원 연구는, ㉠몇몇 예외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 어쭙지않은 한자(漢字)의 지식에 기댄 것이었다.

(나) 한자와의 밀착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방법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어원 연구를 개척한 학자는 권덕규였다. 지난 1920 년대에 그가 논한 단어는 모두 합해야 여남은에 불과 하지만, 중세어(中世語)와 고대어(古代語)의 연구에서 '시내'를 '실'과 '내'의 복합어로 보고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인명 표기와 지명 표기의 예를 들어 ㉡'실'이 골짜기를 뜻한 고대어 단어라고 한 것은 탁견(卓見)이었다. 그 뒤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속지명에 '밤실 [栗谷] ', '돌실 [石谷] ' 등이 ⓐ경성드뭇하게 흩어져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실(谷)'의 존재가 확증되었다.

(다) 이렇게 새로이 시작된 어원 연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었지만, ㉢아직 확고한 터전을 닦았다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원 연구는 음운, 문법, 어휘, 의미 등 여러 분야의 역사적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에 비로소 믿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원 연구는 하나하나의 단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체계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한 단어의 내력을 밝히고 그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국어의 역사를 비추는 크고 작은 조명들이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출 때에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라) 한 예로 '하루'를 들어 본다. 중세어에서 이 단어는 휴지(休止)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 앞에서는 'ᄒᆞᄅᆞ'로,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앞에서는 '홀리, 홀를'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학자들은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 명사가 단일형(單一 形)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하고, 그것을 재구(再構)한다. 여기서는 'ᄒᆞᄅᆞᆯ'을 재구하게 된다. 이 재구는 다행히도 제주도 방언의 지지를 받는다. 제주도의 늙은이들은 지금도 'ᄒᆞ를'이란 단일형을 유지하고 있다.

(마) 탐색이 이에서 그친다면, 모처럼 'ᄒᆞᄅᆞᆯ'을 재구한 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 'ᄒᆞᄅᆞᆯ'을 토대로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까? 먼저, 이 단어를 둘러싼 어휘 체계에 눈을 돌리면, 중세어 문헌에서 '이틀, 사ᄋᆞᆯ, 나ᄋᆞᆯ, 다쐐, 여쐐, 닐웨, 여ᄃᆞ래, 아ᄒᆞ래, 열흘'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수사(數詞)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틀'의 '일'은 좀 특이하지만 '읻희'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사ᄋᆞᆯ, 나ᄋᆞᆯ'의 '사, 나'는 '서, 너'가 모음의 변화를 입은 것이요, ㉤나머지는 '다ᄉᆞᆺ, 여ᄉᆞᆺ, 닐굽, 여듧~여듧, 아홉, 열'과의 관련이 쉽게 인정된다. 그리고 '이틀, 사ᄋᆞᆯ, 나ᄋᆞᆯ, 열흘' 등도 'ᄒᆞᄅᆞᆯ'과 같이 'ᄋᆞᆯ~을'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55. 각 단락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55)

① (가) : 전통적 어원 연구의 역사
② (나) : 과학적 어원 연구의 개척
③ (다) : 어원 연구의 기초적 조건
④ (라) : 어원 연구의 구체적 사례
⑤ (마) : 어원 연구의 실제적 의의

56. (가)의 뒷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것은?56)

① '개(犬)'는 '가이'에서 왔다.
② '우레'는 '우뢰(雨雷)'로 표기해야 한다.
③ 잘못 표기된 '이사'는 '의사(醫師)'로 바꾸어야 한다.
④ 방언의 '사이'는 '새(鳥)'로 교정해야 한다.
⑤ '밝은 달'은 '명월(明月)'로 표현하는 것이 품위 있다.

57. ㉠~㉤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57)

① ㉠ : 전통적인 어원 연구에서도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다.
② ㉡ : 권덕규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어를 재구하였다.
③ ㉢ : 역사적 연구의 성과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④ ㉣ : 국어의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고대에 단일형이었다.
⑤ ㉤ : 어원적으로 보면 수사는 날짜 명사에서 유래되었다.

58.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58)

① 개재(介在)
② 산재(散在)
③ 실재(實在)
④ 잠재(潛在)
⑤ 편재(偏在)

59. (라)에서 '하루'의 어원을 재구하는 과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1.2점][59)]

① 경호는 부둣가에서 상어의 배를 가르는 장면을 보았다. 상어의 배 속에는 고등어가 있었다. 그 고등어의 배 속에서는 새우가 나왔다.
⇒ 고등어가 새우를 잡아 먹은 다음, 상어에게 잡아 먹혔다.

② 순희는 연못에서 올챙이를 잡은 후, 어항 속에 넣었다. 며칠 후, 순희는 어항 속에서 개구리를 발견하였다.
⇒ 올챙이는 얼마간 자란 다음, 개구리로 변한다.

③ 영희는 자기 집 비둘기의 발목에 고리를 끼운 후, 바깥으로 날렸다. 며칠 후 발목에 고리가 있는 비둘기가 영희의 집으로 날아왔다.
⇒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는 새이다.

④ 철수는 며칠 전 개구리가 심하게 울더니 곧 비가 오는 것을 보았다. 오늘 밤에는 개구리가 시끄럽게 운다.
⇒ 곧 비가 올 것이다.

⑤ 민철은 자기의 개에게 야구공의 냄새를 맡게 한 후, 공을 방망이로 힘껏 쳐서 멀리 날려 보냈다. 잠시 후, 개는 그 공을 입에 물고 민철이에게 돌아왔다.
⇒ 개는 후각이 대단히 발달하였다.

<어휘 변천>

2003년 9월 모의평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 어휘의 변화

음운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들이 반영된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변화 양상까지도 읽을 수가 있다.

고대 국어의 어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기의 우리말 어휘는 외래 요소에 의한 오염이 없이 순수한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 시대에 들어와 중국과의 교섭이 잦아지면서 수많은 한자어들이 들어와 우리말의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이중적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16년(서기 757년)에 원래 고유어였던 땅 이름, 사람 이름, 관직 이름 등이 대부분 한자어로 바뀌게 된 것도 한자어의 세력이 강해진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고유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의 문헌들에는 '온[百]', '즈믄[千]', 'ᄀᆞᄅᆞᆷ[江]'과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많은 고유어들이 발견된다. 이들은 뒤에 대부분이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또, 외래어의 도입도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 결과 고유어는 수적으로 점점 위축되어 왔다. '붇[筆]', '먹[墨]' 등의 단어는 중국어를 직접 차용한 것이며, '부텨[佛陀]', '미륵[彌勒]' 같은 불교 용어는 범어(梵語)가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말에 들어온 것이다. 고려 말기에는 관직, 군사에 관한 어휘를 비롯하여, 말과 매, 그리고 음식에 관한 단어들이 몽골어에서 들어왔다. '가라말[黑馬]', '보라매[秋鷹]', '수라[御飯]' 등이 그 예이다.

갑오개혁으로 대표되는 개화기를 전후하여 우리말의 어휘에는 다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를 사용하여 번역된 서구의 신문명어들이 대량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공기, 전기, 이발, 대학교, 권리, 석유, 철로, 병원,……' 등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이 시기에 들어온 것이다. 또,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일본어들이 우리말에 들어왔었으나 광복 뒤 꾸준한 ⓐ<u>정리</u> 작업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광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명과 직접 관계를 맺는 일이 잦아지면서 서구 외래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은 현대 국어 어휘의 커다란 특징이다.

단어의 의미도 역시 변화하였다.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의미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보다 확장된 예는 많이 있다. '영감(令監)'은 옛날에는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벼슬을 한 지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게 되었다. '다리[脚]'도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에서 무생물의 다리로까지 의미 영역이 확장된 말이다.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보다 축소된 경우도 있다. '짐승'은 원래 한자어인 '즁싱(衆生)'에서 온 말로, 원래 유정물(有情物)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였지만, 이 말에서 비롯된 '짐승'이란 말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만을 가리키게 되어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놈, 계집' 같은 말이 있다. 이들은 원래 일반적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던 것인데, 그 의미 영역이 축소되어 지금은 비속어로 사용된다.

한편, 의미의 확대나 축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령,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또, 중세 국어에서 '어엿브다'는 현대 국어처럼 '아름답다'는 뜻이 아닌 '불쌍하다'는 뜻이었다.

60. 한 학생이 윗글을 읽어 나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읽기 전략에 따른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60)]

	<전략>	<결과>
①	제목을 통한 내용의 추리	어휘 체계, 형태, 의미 등의 변화를 다룰 것 같다.
②	배경 지식의 활성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언어의 역사성)
③	주요 어구의 파악	우리말 어휘의 변화 양상, 한자어의 유입, 외래어의 도입, 단어의 의미 변화
④	세부 정보의 확인	1. 어휘 체계의 변화 (1) 한자어 유입－이중적 어휘 체계 형성 (2) 외래어 도입－고유어 위축 2. 어휘 의미의 변화 (1) 의미의 확장－영감, 다리 (2) 의미의 축소－짐승, 놈, 계집 (3) 다른 의미로의 변화－어리다, 어엿브다
⑤	감상·반응	우리말 어휘의 의미가 변해 가는 것을 막아 우리말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해야 하겠다.

61. <보기>는 사전의 뜻풀이이다. ⓐ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61)]

< 보 기 >

정리(整理)[정:니] 명 ㉠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책상 정리/집안 정리/교통 정리. ㉡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함. ¶서류 정리/카드 정리. ㉢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 ¶채무 정리/재개발 지역의 택지 정리. ㉣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아니하고 끝냄. ¶관계 정리. ㉤ 은행과의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록으로 나타냄. ¶통장 정리.

① ㉠ ② ㉡ ③ ㉢ ④ ㉣ ⑤ ㉤

62. 중세 국어 시대의 인물과 현대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상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다. 단어의 의미 변화를 고려할 때, 대사가 잘못 구성된 것은?[62)]

구중세 : 어허! 저것들이 다 무엇인고?
신현대 : 영감님! 저건 자동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마차 같은 것이지요.
구중세 :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런가? 그런데, 저걸 모는 사람은 계집이 아닌가? (혀를 차며)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일을 할꼬? 어엿브기도 하여라. ①
신현대 : (혼잣말로)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낮은 목소리로) 영감님! 계집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여자가 들으면 싫어할 거예요. ②
구중세 : (의아한 표정으로) 뭐라? 그건 그렇고. 이 사람아, 나는 영감이 아닐세. 아무한테나 영감이라고 해서는 안 되네. ③
신현대 : (어리둥절해 하며)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론 주의하겠습니다. ④
구중세 : 자네가 어리긴 뭘 어린가? 조금 있으면 장가들 나이인데. ⑤

63. 윗글에 관한 발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모둠 토의를 하고 있다.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63)]

① 숙영 : 현대 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고유어에는 어떤 것이 더 있을까?
② 희숙 : 우리가 채팅할 때 쓰는 말 중에서 원래의 의미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③ 영호 :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서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는 은어, 비속어는 무엇일까?
④ 인희 : '고유어－한자어－서구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 국어 어휘의 삼중 체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⑤ 철수 : 이 글에 제시된 우리말 어휘 변화의 양상을 통해 읽어 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 양상은 무엇일까?

2003년 수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언중(言衆)의 역사와 생활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언어를 문화의 색인(索引)이라고까지 말한다. 한 민족은 그 민족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사상, 감정 및 사고 방식도 아울러 지닌다. 이들은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는데, 어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국어의 어휘상의 특질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량의 한자어들이 들어와 한자어가 전체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한자는 대략 기원전 3세기경에 이 땅에 전래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경에는 이미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신라 22대 지증왕 때와 35대 경덕왕 때에 각각 ㉡인명과 지명 등을 한자어로 바꾸었다. 이러한 한자어는 그 후 고려 시대에 불교, 조선 시대에 유학이 융성함에 따라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우리말에는 감각어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편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언어에 반영되어 우리말에 감각적인 어휘가 풍부하게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만 하더라도 매우 다양하다. 노란색을 나타내는 말이 영어에서는 'yellow' 하나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어의 감각어가 얼마나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상징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상징어는 주로 소리, 동작 형태를 모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수단의 하나이다. 상징어는 국어에 특히 발달되어 있고, ㉢음상의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나) 우리말의 특징을 고려하여 우리말을 표현력이 더욱 풍부한 언어로 만들려면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말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어휘와 관련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현력을 높이려면 우선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합성법을 사용하거나, '-보, -쟁이' 등 파생 접사를 이용한 파생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기 위해 외래 요소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한문을 사용해 온 까닭으로 우리말에는 다량의 한자어가 들어와 있다. ㉤우리 민족은 한자어를 받아들이되 우리식 한자음으로 읽었으며, 한자어 명사나 부사에 '-하다'를 붙여 우리말 조어 규칙에 맞는 동사로 만들어 받아들였다.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하다', '다이내믹하다'처럼 영어의 형용사에 '-하다'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또 우리말에 발달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새로 만드는 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사전에는 '사르르'만 실려 있는데, 실제 발화에서는 '사르르르', '사르르르르'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소설류에는 '나훌나훌', '필릴리' 등 기존 사전에 없는 상징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 일부는 개인이 만든 것일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어휘들은 이후에 사회적인 공인을 얻어 사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 어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옛말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어촌 지역에서 주로 쓰이던 '하늬바람'이 시어 등에 자주 사용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고, '가람, 뫼' 등 옛말 어휘가 오늘날 인명, 상표명 등에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우리말에 존재하던 어휘들이 새롭게 쓰이면서 정서적인 의미를 추가로 가지게 되어 우리말의 표현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64. (가)와 (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64)]

① (가)를 (나)에서 사례를 들어 보완하고 있다.
② (가)를 (나)에서 긍정하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가)에 대해 (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를 근거로 (나)에서 미래에 전개될 방향을 예견하고 있다.
⑤ (가)와 관련하여 (나)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5. (가), (나)로부터 이끌어 내기 <u>어려운</u> 것은?[65)]

① 외래어도 해당 언어를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사전에서 방언이나 옛말을 찾아 쓰는 것은 어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③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에서의 실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④ 소리나 동작 형태를 모사하는 상징어는 감각적 표현을 풍부하게 해 준다.
⑤ 생활 양식이나 의식이 변하면 어휘의 특질이 변할 수 있다.

66. ㉠~㉤의 사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66)]

① ㉠ : '김치, 된장, 온돌' 등 우리 생활을 반영하는 어휘
② ㉡ : 고유어 지명 '매홀'을 한자어 지명 '수성(水城)'으로 바꿈
③ ㉢ : '캄캄하다–깜깜하다'처럼 자음의 차이에 따라 어감이 다른 어휘로 분화됨
④ ㉣ : '먹다→먹이다', '남다→남기다'처럼 '-이-'나 '-기-'를 붙여 사동사를 만듦
⑤ ㉤ : 중국 한자음으로 첫소리가 '[ㄹ(l)]'인 '來日', '老人'을 우리식 한자음 '[내일]', '[노인]'으로 읽음

67. ⓐ와 관련하여, <보기>의 원리에 따라 우리말 색채어의 다양성을 학습해 보고자 한다. (　　) 안에 알맞은 것은?67)

< 보 기 >

<색채어 분화 원리>
1. '노랗다'와 같이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는 밝은 색깔을 표현하고, '누렇다'와 같이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는 어두운 색깔을 표현한다.
2. '샛-'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싯-'은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붙는데, 둘 다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한다.
3. '-스름하다', '-스레하다'가 결합하면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를 더해 준다.

<예문>
개울가에는 노란 달맞이꽃이 오후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얼굴을 찡그린 채 줄지어 서 있었다. 해가 지자 달맞이꽃들은 차츰 희미해져서 노르스름한 점들로 보였다. 시간이 흘러 산등성이에서 달이 뜨기 시작했다. 노르스레하던 달맞이꽃은 달이 떠오르자 점점 선명해져 여기저기 작고 (　　) 얼굴을 내밀었다.

① 누런　② 싯누런　③ 샛노란
④ 누르스레한　⑤ 노릇노릇한

<문장 부호>

2009년 수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의 문장 부호는 독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적 기호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형태나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옛 문헌에도 오늘날의 문장 부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 띄어쓰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옛 문헌에서 이러한 부호들은 더욱 요긴하게 쓰였다.

현대의 마침표나 쉼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있다. '∘'은 찍힌 위치에 따라 그 기능이 달랐다. 세로쓰기를 했던 옛 문헌에서 글자의 오른쪽 아래에 찍힌 점은 구점(句點)이라 하는데, 마침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글자 아래쪽 가운데에 찍힌 점은 두점(讀點)이라 하는데, 쉼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구두점'이란 말은 여기서 유래한다. 단락이 끝나고 공백이 오는 경우와 같이 문장이 끝났음이 명백할 때에는 문장 뒤에 구점이 생략된다. 『훈민정음해례』나 『용비어천가』 등에 이러한 구두점이 사용되었다.

'○'은 새로운 단위의 내용이 시작될 때 쓰였다. 각각의 예문이나 단락, 조항 등이 시작하는 곳이나 화제가 전환되는 곳에 사용되었다.

주석을 달기 위해서는 '【 】'가 사용되었다. 단어나 구절의 뜻을 풀이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 】' 안에 그 내용을 넣었다. 오늘날의 '( )', '[ ]'와 기능이나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구점과 마찬가지로 단락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가 생략된다.

㉠'〃', '々', 'ㅅ'은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 주는 부호인데, 인쇄본보다는 손으로 쓴 필사본에 더 많이 나타난다. 한편 사전류에서는 설명의 대상인 표제어가 용례로 반복되어 나타날 때 '—'로 대체하였다. '〃' 등은 바로 앞에 오는 글자나 어구의 반복만 나타낼 수 있는 데 비해, '—'는 위치에 상관없이 표제어에 해당하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호들은 한문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사용하여 우리의 문자 생활을 다채롭고 정확하게 하였다. 구점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어, 세로쓰기를 할 때 마침표로 사용된다. '○', '〃'은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도 쓰이고 있다.

※ 이 글에 쓰인 옛 문헌의 부호들은 가로쓰기에 맞게 방향을 바꿔 제시한 것임.

68. 위 글의 중심 내용은?68)
①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기원
②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변화 과정
③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
④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현대적 수용
⑤ 옛 문헌과 현대 문헌의 문장 부호 비교

69. ㉠을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69)
①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② 문장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기 위해
③ 띄어쓰기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④ 쓰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⑤ 글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70. <보기>는 현대 어휘 용례 사전의 일부이다. 위 글을 읽고 옛 문헌에 사용된 부호를 적용해 본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70)

< 보 기 >

오늘
¶ 고량진미도 나물국부터 시작하고,(ⓐ) 천 리 길도 문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법.(ⓑ) 나의 오늘(ⓒ) 역시 내일의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이다. - 이규보(고려 시대의 문인)(ⓓ)
¶(ⓔ)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①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두점을 찍었겠군.
②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구점을 찍었겠군.
③ 옛 문헌이라면 ⓒ의 ‘오늘’ 대신에 ‘—’를 사용했겠군.
④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를 사용했겠군.
⑤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을 사용했겠군.

문법 체화서 별책 부록 - 지문형 문법 총정리 해설

[고전 문법 - 훈민정음 관련]

1. ⑤

정답의 근거

⑤는 '3번째 문단'에 '음소 단위의 분석에 나아가 자질 문자로 나눌 줄 알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한글은 소리를 중심으로 만든 글자이므로 오답이다.
② '한글의 자음은 기본자를 '가획'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소리나는 위치는 같으므로 틀렸다.
④ 영어나 로마자는 글자 모양과 소리값이 관련을 맺지 않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2. ④

정답의 근거

본문에서 필자는 한글의 우수성의 근거로 모음 소리값의 일정, 모음의 생성 방식의 체계성, 자음의 형태와 소리값의 계열화 및 조음 기관을 본뜬 자음의 생성 방식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④와 같이 자음과 모양의 모양이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진술은 사실성에서도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오답의 근거

① '4번째 문단'에서 '우리의 모음은 ~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번째 문단'에서 '모음을 생성하는 방식도 매우 과학적임을 알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번째 문단'에서 ''ㄴ, ㄷ, ㅌ'처럼 형태적으로 비슷하게 계열화함으로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번째 문단'에서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 조음기관을 본뜬 것이라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④

정답의 근거

'ㅓ'와 'ㅏ'를 결합되어 ㅑ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오답의 근거

① ㉠은 글자의 모양과 음가가 연계되어 있는 사례이다.
② ㉡은 가획의 또 다른 사례이다.
③ ㉢은 모음의 기본자가 어떤 원리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사례이다.
⑤ ㉤은 모음이 축약될 경우의 예를 든 것이다.

4. ①

정답의 근거

①의 '한글의 보급 방식과 전파 경로'는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바른 심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의 근거

② 한글의 우수한 점 이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은 본문을 근거로 한 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한글의 운용 원리와 다른 나라의 운용 원리를 비교해 보는 활동은 본문을 근거로 한 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찾아보는 활동은 본문을 근거로 한 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한글의 우수성을 국외에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은 본문을 근거로 한 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 문법 - 훈민정음 관련]

5. ④

정답의 근거

자음의 명칭을,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이는 것은 두 글자, 첫소리에만 쓰이면 한 글자로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현대 자음의 명칭이 모두 두 글자로 쓰인 것은 해당 자음이 첫소리와 끝소리에 모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현대의 자음과 16세기의 자음은 같지 않다. 'ㅿ'을 확인해 볼 것!
② 현대로 오면서 새로운 자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ㅋ, ㅌ, ㅍ, ㅈ'은 16세기에도 언급된 자음이다.
③ 해당 내용은 ㉠과 상관이 없다.
⑤ 16세기의 받침 표기와 현대의 받침 표기는 같지 않다. 예로 '키윽'의 'ㅋ'은 16세기에 첫소리로만 쓸 수 있고, 끝소리로는 쓸 수 없다.

6. ③

정답의 근거

<훈몽자회>는 한글 자모의 명칭을 밝히고 있으며, <보기>

는 한글 자음의 음가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의 근거

① 'ㄱ:其役(기역), ㄴ:尼隱(니은), ㄷ:池末(디귿), ㄹ:梨乙(리을)…ㅋ:箕(키)…ㅊ:治(치)…'이란 내용과 '君(군)'이라 적은 내용을 고려해 보면 둘다 한자를 이용하여 한글의 자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3번째 문단'에서 '기본자의 가획 순서는 훈민정음 해례의 조음 위치에 따른 배열순서와 일치한다.'는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기> 역시 '가획'과 '이체자' 순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훈민정음 해례의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배열했다고 말할 수 있다.

④ <보기>는 현대 국어의 자음 배열 순서에서 멀다. 현대 국어의 자음 배열은 'ㄱ, ㄴ, ㄷ, ㄹ, ㅁ, ~' 순이다.

⑤ '1번째 문단'에서 '이 책에서 글자의 배열은 첫소리(초성)와 끝소리(종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 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적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읽어보면, 타당하다.

7. ④

정답의 근거

<보기>에서 '한자는 해체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의 근거

① '수만 자가 넘는 한자를 컴퓨터 자판에 다 올려놓을 수 없으나'라는 정보와 '한글처럼 분해할 수 없다'는 정보를 고려해보면 충분히 '효율성'을 추론할 수 있다.

② '일본의 한 업체도 제안을 했다'는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한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발음 기호로 한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③ '세벌식'의 기준을 '첫소리, 모음, 받침'이라 하는 것을 보아 가능한 설명이다.

⑤ '두벌식'은 '끝소리=첫소리'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다.

[고전 문법 - 훈민정음 관련]

8. ①

정답의 근거

(가)~(라)까지 모두 '언어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의 근거

② '언어의 자의성'이란 '뜻과 기호 간의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의미인데, 중심 내용과 관련성이 적다.

③ '사회적 기능'이란 친교적 담화와 관련이 있는데,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 해당 글에 맞지 않다.

④ '표준어'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한글의 과학성'을 언급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

9. ⑤

정답의 근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집'의 의미가 '여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의 내용과 관련성이 깊다.

오답의 근거

①, ②, ③, ④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인위적인 행동이다.

10. ③

정답의 근거

(다)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한자(漢字))로는 의미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자신의 뜻을 제대로 실어 펴지 못하므로, 내가 이를 위하여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편하고 쉽게 쓰도록 할 따름이다.'이다.

여기에 '제도 정비를 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의 근거

① '새로 스믈 여듧 字ᄍᆞᆼ를 ᄆᆡᇰᄀᆞ노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랏말ᄊᆞ미 中듕國귁에 달아 文문字ᄍᆞᆼ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ᄉᆞᄅᆞᆷ마다 ᄒᆡᅇᅧ 수ᄫᅵ 니겨 날로 ᄡᅮ메 便뼌安한킈 ᄒᆞ고져 ᄒᆞᇙ ᄯᆞᄅᆞ미니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어린 百ᄇᆡᆨ姓셩이 니르고져 ᄒᆞᇙ 배 이셔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ᇙ 노미 하니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②

정답의 근거

㉠의 '마음'은 '의사'와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예로 ②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③, ④, ⑤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과 의미가 가깝다고 할 수 없다. (해당 문제는 공통적인 대상을 찾아 소거하는 것이 편하다.)

12. ④

정답의 근거

㉡은 '음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단어의 모습'이 바뀐 것으로, 이러한 예로는 '뗘디'가 있다. 현대에 와서는 구개음화가 된 '펴지'로 쓰기 때문에 음운 변화의 예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나라'는 음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시이다.
② '이런'은 음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시이다.
⑤ '날로'는 음운 변화와 관련이 없는, '로'에서 '마다'로 조사가 바뀐 예시이다.

13. ①

정답의 근거

'인과관계'를 이루는 문장은 ①뿐이다. '나라의 말이 중국의 문자와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않는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오답의 근거

② 이 문장에는 '니르고져'에서 '말하고 싶다'는 의도만 확인할 수 있다.
③ '제 뜻을 밝히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말로, 수식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⑤ 이 역시 '~게 하고 싶다'는 의도가 함의되어 있다.

[고전 문법 - 우리말의 특성]

14. ②

정답의 근거

'3번째 문단'에서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는 정보를 고려해 볼 때, '음절 문자'가 '음운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의 근거

① '1번째 문단'에서 '문자는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는 설명을 고려해 볼 때, '표음 문자'는 '그림 문자'보다 발달된 문자로 이해할 수 있다.
③ '3번째 문단'에서 '한글이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는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번째 문단'에서 '한자는 표의문자이지만, ~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한다.'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번째 문단'에서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반드시 문자의 우수성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③

정답의 근거

ㄱ : '2번째 문단'에서 '추가된 획은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라는 정보를 참고하여 볼 때, '자질 문자'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ㄴ : '4번째 문단'에서 '한자는 ~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참고하여 볼 때, '음절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ㄷ : '4번째 문단'에서 '한글은 ~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참고하여 볼 때, '음절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16. ④

정답의 근거

④에 제시된 한자는 자형의 유사성은 있으나, 문자 전체 체계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글자에 '자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한 답이라 할 수 없다.

오답의 근거

① '2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ㅋ'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이다.
② '2번째 문단'에서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ㄱ, ㅋ''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번째 문단'에서 '추가된 획은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번째 문단'에서 ''거셈'이라는 자질이 자형에 반영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자질이 하나의 독립된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③

정답의 근거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진 선지는 ③과 ④인데, 같은 모음인 것은 ③ 하나뿐이다.

오답의 근거

①, ② '모음'과 관련된 것이 없다. 자질 문자의 특성도 확인할 수 없다.
④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음의 표기가 잘못 되었다.
⑤ 음운 문자와 모아쓰기만이 반영되어 있다.

[고전 문법 - 우리말의 특성]

18. ④

정답의 근거

이 글의 구조를 보면, 처음 두 문단에서는 말과 문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문자란 말과는 독립적인 기호라는 점을 밝히고, 다음 두 문단에서는 한글의 형태주의 표기와 모아쓰기 표기법은 이러한 문자의 독립성을 반영한 표기법임을 밝힌 뒤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시 문자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표기법을 택하는 것이 이상적인 문자 표기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한글을 예로 들어서 문자의 이상적인 표기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찰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19. ④

정답의 근거

이 글에는 비유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는데, ④는 바로 비유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의 근거

① 한글의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② 표음주의 표기와 형태주의 표기 방식을 대비시키고 있으며, 풀어쓰기 방식과 모아쓰기 방식의 차이점을 대비시키고 있다.
③ 문자는 말의 대용물이라는 기존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
⑤ 첫 문단에서 '이상적인 문자나 표기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이를 규명해 나가는 것이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이다.

20. ③

정답의 근거

③에서 'ㅐ'와 'ㅔ'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자로 쓰인 '배'와 '베'를 구별한다는 것은 문자를 말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사람은 '소리와 매개하지 않고' 문자와 개념을 직접 대응시키고 있다.

오답의 근거

① 말과 사고(思考)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②, ⑤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④ 음향과 음성의 차이를 설명할 때 들 수 있는 사례이다.

[고전 문법 - 우리말의 특성]

21. ⑤

정답의 근거

⑤는 '3번째 문단'에 '음소 단위의 분석에 나아가 자질 문자로 나눌 줄 알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한글은 소리를 중심으로 만든 글자이므로 오답이다.
② '한글의 자음은 기본자를 '가획'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소리나는 위치는 같으므로 틀렸다.
④ 영어나 로마자는 글자 모양과 소리값이 관련을 맺지 않고 있으므로 오답이다.

22. ④

정답의 근거

본문에서 필자는 한글의 우수성의 근거로 모음 소리값의 일정, 모음의 생성 방식의 체계성, 자음의 형태와 소리값의 계열화 및 조음 기관을 본뜬 자음의 생성 방식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④와 같이 자음과 모양의 모양이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진술은 사실성에서도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오답의 근거

① '4번째 문단'에서 '우리의 모음은 ~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번째 문단'에서 '모음을 생성하는 방식도 매우 과학적임을 알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번째 문단'에서 ''ㄴ, ㄷ, ㅌ'처럼 형태적으로 비슷하게 계열화함으로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번째 문단'에서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 조음 기관을 본뜬 것이라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④

정답의 근거

㉣은 'ㅣ'와 'ㅡ'를 결합하여 생성되는 경우는 없고, 'ㆍ'와 'ㅏ'를 결합된 말은 없다.

오답의 근거

① ㉠은 글자의 모양과 음가가 연계되어 있는 사례이다.
② ㉡은 가획의 또 다른 사례이다.
③ ㉢은 모음의 기본자가 어떤 원리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사례이다.
⑤ ㉤은 모음이 축약될 경우의 예를 든 것이다.

24. ①

정답의 근거

①의 '한글의 보급 방식과 전파 경로'는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바른 심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의 근거

② 한글의 우수한 점 이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은 본문을 근거로 한 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한글의 운용 원리와 다른 나라의 운용 원리를 비교해 보는 활동은 본문을 근거로 한 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찾아보는 활동은 본문을 근거로 한 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한글의 우수성을 국외에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은 본문을 근거로 한 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 문법 - 훈민정음 창제 전]

25. ①

정답의 근거

'훈차'는 한자의 뜻을 빌려 우리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1번째 문단'에 예로 언급한 '밤고개'와 '율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자 한 글자가 우리말 음절 하나와 대응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답의 근거

② '爲'는 '하다'의 뜻을 빌려 쓴 것이기 때문에 '훈차 표기'에 해당한다.
③ '3번째 문단'에서 '[곶], [닫]과 같이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음절이 많았다.'는 정보를 고려해 볼 때, 타당한 설명이다.
④ '1번째 문단'에 든 예와 유사하다.
⑤ '2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④

정답의 근거

'3번째 문단'에서 '우리말은 [곶], [닫]과 같이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음절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 수도 2,000개 이상이 필요하였다'는 정보를 고려해 볼 때, 한자 차용 표기는 우리말의 소리를 충분히 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2번째 문단'의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단계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
② '고려 시대 이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은 올바르지 않다. 조선 후기까지 이두, 구결 등 한자 차용 표기가 사용되었다.
③ '2번째 문단'에서 '문법적 기능이 중요한 조사나 어미는 음차를 하였다.'는 정보를 고려해 볼 때, 문법 적 기능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곶], [닫]과 같은 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차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27. ③

정답의 근거

ㄴ : '2번째 문단'을 이해해 보면 우리는 한자를 빌려와 음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순을 조정하거나 조사나 어미를 첨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ㄷ : '2번째 문단'에서 '한 어절의 표기가 '훈차 + 음차'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해 볼 때, 띄어쓰기 단위와 연결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오답의 근거

ㄱ : '2번째 문단'에서 우리말과 중국어의 어순은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서술어-목적어'로, 우리말의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이다.
ㄹ :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를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문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향찰과는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부정한 것은 지문의 내용과 맞지 않다.

28. ①

정답의 근거

<원리>
① '뜻이 중요한 명사나 용언 어간' : 훈차
② '문법적 기능이 중요한 조사나 어미' : 음차
<보기>
① 나, 너, 사랑 : 훈차
→ 표기 : I, YOU, LOVE
② 는, 를, 한다 : 음차
→ 표기 : neun, reul, handa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답은 ①이 된다.

오답의 근거

②, ④ 쓰기 부분에서 영어는 '훈차'로 써야 하기 때문에 I, YOU, LOVE가 있어야 한다.
③ 어순이 우리말과 맞지 않다.
⑤ 'I'를 한자어에 빗대면, '나'라는 훈과, '아이'라는 음을

가진 단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읽기'를 할 때는 훈으로 읽어야 하므로 'na'라고 적어야 타당하다.

[고전 문법 - 통시적 문법]

29. ⑤

정답의 근거

(가)에서는 통시적인 변화와 공시적인 변화를 함께 설명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국어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음운 변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통시적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사회성이란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이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는 설명이다.
②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
③ (가) 역시 '음운'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휘' 중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④ (가)와 (나) 모두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성'과 '보편성'이란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30. ④

정답의 근거

불규칙 활용에 나타나는 음운 변화는 수의적 변화이고, 수의적 변화는 결합적 변화에 해당하므로, 결국 불규칙 활용에 나타나는 음운 변화는 결합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나)의 '1번째 문단'을 보면, '조건 변화에는 동화, 이화 등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
② (가)의 '1번째 문단'을 보면, '개인에 따라 발음을 달리하기도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2번째 문단'을 보면 '공시적인 변동의 경우는 대부분이 결합적 변동이고'라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3번째 문단'을 보면 '가령 중세 국어에서 전기와 후기 사이에 일대 모음 추이가 일어난 것은 무조건 변화의 한 예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⑤

정답의 근거

(나)에서 '㉠조건 변화'는 어떤 음의 변화가 그 인접어의 영향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 했고, (가)에서 '결합적 변화'는 음운의 환경이나 음운이 결합되는 조건 등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두 개념이 동일한 것이다.

오답의 근거

① '음운의 변화'는 범주가 가장 넓기 때문에, 다시 ㉠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찾았어야 했다.
②, ③ '통시적인 변화'와 '공시적인 변화'는 '결합적 변화'와 '자생적 변화'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에 인접어의 영향이라는 조건과 관련 짓기 어렵다.
④ '자생적 변화'는 음운 자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건 변화'의 상황과 같지 않다.

32. ⑤

정답의 근거

'불능'에서 /ㄴ/이 /ㄹ/ 소리로 변한 것은, /ㄴ/ 앞에 오는 양순음 /ㅁ/의 영향 때문이다. 이 경우 앞의 음이 뒤의 음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역행 동화'가 아니라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오답의 근거

① ⓐ는 통시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중세어'와 '현대어'라는 언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는 (가)의 '2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비음 앞에 오는 /ㄷ/은 예외 없이 /ㄴ/으로 변하는 것이 결정적 변동의 예이다.'는 설명과 관련지어 판단할 수 있다.
③ ⓒ는 (가)의 '3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불규칙 활용의 경우 음운 변동은 경우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수의적 변동에 해당한다.'는 설명으로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의 예시는 'ㄷ불규칙 용언'이다.
④ ⓓ는 (나)의 '2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근대 국어에서 양순 자음 뒤의 'ㅡ'가 'ㅜ'로 변한 것은 순행 인접 동화'라는 설명과 관련지어 판단할 수 있다.

[고전 문법 - 통시적 문법]

33. ②

정답의 근거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단어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어순이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언간은 원문의 간섭이나 제약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오답의 근거

① '2번째 문단'을 보면, '언해 자료는 번역의 속성상 원문인 한문의 간섭이나 제약을 많이 받는다.'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언해보다 언간이 원문의 간섭과 제약이 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③ '1번째 문단'을 보면, '개인적인 사연이나 감정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에서 '공적인 목적'보다 '사적인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3번째 문단'을 보면, '대화 상황을 전제'하였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⑤ '1번째 문단'에서 '사대부 간에 주고받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기에 '남성들이 주로 창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4. ④

정답의 근거

언간에서는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에도 방언형이 등장한다. '말심'은 중앙어의 일반적 어형인 '말숨'의 방언형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말심'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니다.

오답의 근거

① 16세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내'라는 호칭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보기>에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자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16세기에 비해 오늘날에는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테'는 조사 '에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향ᄒᆞ여'의 축약형인 '향히'가 위 글에 인용된 언간에 쓰이고 있다.

⑤ 언간의 끝은 '이만 적습', '여의치 못' 등 종결어미를 생략하여 쓰기도 했다.

35. ①

정답의 근거

'총총'은 편지글을 쓸 때 끝맺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글쓴이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혹시라도 몰랐던 사실이라면 '총총'을 알아두면 좋겠다.)

오답의 근거

② '근심'이란 주관적 감정이 '더옥'을 반복함으로써 강조되고 있다.

③ '무언가 바라는' 주관적 감정이 '보고쟈'를 반복함으로써 강조되고 있다.

④ '잘 지내는가?'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 '부듸'를 반복함으로써 강조되고 있다.

⑤ '황송하다'는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반복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

[통시적 문법]

36. ②

정답의 근거

이 글에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인 구개음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개음화의 개념 및 그것이 일어나는 음운 조건, 구개음화가 일어난 시기와 지역, 구개음화와 관련된 자료, 구개음화가 진행된 과정과 양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의 근거

① 1문단에서 구개음화의 음운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난 지역적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ㄷ, ㅌ'의 구개음화는 'ㅈ, ㅊ'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을 통해 'ㅈ, ㅊ'의 구개음화가 먼저 일어났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구개음화가 진척된 이후에 '듸, 틔'가 '디, 티'로 변하면서 이 형태가 다시 나타났다는 설명을 통해 '디, 티'가 남아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37. ③

정답의 근거

㉠ '이르다'는 구개음화된 'ㄴ'이 어두에서 음운 제약에 의해 탈락된 것이고, ㉡은 'ㅌ'이 'ㅊ'으로 구개음화된 것이다. 이 둘 모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뀐 단어이다.

오답의 근거

① ㉠에는 구개음화된 'ㄴ'이 탈락되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은 구개음화된 자음인 'ㅊ'이 탈락되지 않았다.

④ ㉠과 ㉡ 모두 단일 형태소 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사례들이다.

⑤ ㉠과 ㉡ 모두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다.

38. ②

정답의 근거

ⓐ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시기의 자료이다. 따

라서 이 시기의 ‘ㄷ’과 ‘ㅌ’은 구개음이 아니었다.

오답의 근거

① ‘져’는 '뎌'가 구개음화된 형태이므로 ⓐ가 앞선 시대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③ 모음 ‘ㅣ’ 나 반모음 ‘ ̆ ’ 앞에서 ‘ㄷ, ㅌ,’이 구개음인 ‘ㅈ, ㅊ’이 되는 현상이 구개음화이므로, ‘져, 지, 진’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 있는 ⓑ는 구개음화가 진척된 후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ㅈ, ㅊ’이 모음 ‘ㅣ’나 반모음 ‘ ̆ ’앞에서만 구개음으로 변하다가 ‘ㅈ, ㅊ’을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자, 저, 조, 주’와 ‘쟈, 져, 죠, 쥬’의 변별적 차이가 사라져 19세기 문헌 에서는 ‘자’와 ‘쟈’, ‘저’와 ‘져’ 등이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에 나타난 ‘저’와 ‘져’가 이러한 사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구개음화가 적용된 단어인 ‘어질다, 모질다’ 등이 현재 쓰이고 있다는 것을 통해 구개음화 현상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통시적 문법 - 합성법]

39. ⑤

정답의 근거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였지만 현재에는 단일어로 여겨져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두디다’ > ‘뒤지다’와 같은 그동안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오답의 근거

① 본래 합성어였던 두더지 는 현재 단일어로 여겨진다.

② 합성어 유형 구분의 기준은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③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른 것은 통사적 합성어이고,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견주어 볼 때 차이가 드러난다.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의 어간은 ‘뿣-’인데, ‘뿣 > 숫’으로 그 형태가 변화한 것일 뿐이다.

40. ④

정답의 근거

‘거우루엣’의 ‘엣’은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능이 오늘날의 ‘에’에 대응하지는 않는다.

오답의 근거

① ‘귀엣’은 ‘귀(명사) + 에(부사격 조사) + ㅅ(관형격조사)’로 분석되며, ‘거우루엣’은 ‘거우루(명사) + 에(부사격 조사)’로 + ㅅ(관형격 조사)‘로 분석된다

② <보기>에서 ‘제’는 생략될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거우루엣’과 ‘그르멜’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루었는데 ‘거우루엣’은 ‘귀엣’과 유사한 구성이고 <보기>의 ‘그르메’와 ③의 ‘말’은 모두 명사이므로 ‘귀엣’과 ‘말’ 사이에도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⑤ 지문에 의하면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곧 비통사적 합성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귀엣말’은 ㉠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기>에서 ‘거우루엣 (제) 그르멜’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 ‘귀엣’과 ‘거우루엣’이 그 짜임새가 같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합성어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1. ③

정답의 근거

ⓒ는 ‘오르-’라는 용언 어간과 ‘내리-’라는 용언 어간의 결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르내리다’라는 합성어로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읽다’ 와 ‘갈무리하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하면 ‘읽갈무리하다’ 가 된다.

오답의 근거

① ‘가락’이라는 체언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② ‘빼빼한’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④ ‘부드럽-’이라는 용언 어간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이다.

⑤ ‘새큼달큼’이라는,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이다.

[파생법]

42. ④

정답의 근거

첫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파생어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어근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파생어의 의미 도출 원리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파생어의 의미가 어근과 접사의 의미의 합으로 예측될 때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여 합성성의 원리 준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 다섯째 문단에서는 어근의 의미가 파생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둘째 문단이 [A]에 해당하는

데, 둘째 문단에서는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한 파생어의 사례와 그러하지 아니한 파생어의 사례를 모두 언급하고 있다. 합성성의 원리 준수 여부에 따른 파생어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3. ②

정답의 근거

'풀이'는 '모르거나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밝히어 말하는 일', '어떤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어 내는 일(또는 그 결과)'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풀다'의 의미 중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등의 의미와 접사 '-이'의 의미로부터 '풀이'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풀이'의 의미는 '풀다'의 의미 중 일부와만 관련된다. '풀이'의 의미는 '풀다'의 의미 중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어떤 감정이나 분노 따위를 누그러뜨리다' 등과는 관련성이 없다.

③ '풀이'의 '-이'는 '먹이'의 '-이'는 명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라는 점에서 그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

④ '풀이'는 어근 '풀-'과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⑤ <보기>에 제시된 '풀다'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을 통해 '풀-'은 다의적인 어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4. ⑤

정답의 근거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단어의 중심적(기본적) 의미는 그 단어의 사전 뜻풀이의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의하면 '풀다'의중심적(기본적) 의미는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풀이'에는 그러한 의미가 반영되지 않고 주변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말의 정비]

45. ⑤

정답의 근거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주시경의 업적이다. 그런데 글쓴이는 국어학자로서, 국어 교육자로서 주시경의 업적을 다루면서 그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인 인물, 놀라운 통찰력, 의의가 크다, 큰 공헌을 하였다,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 등의 표현에서 글쓴이는 주시경의 업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 ⑤

정답의 근거

제시된 지문에서 단어의 의미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의미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다룬다면 특정한 어휘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오답의 근거

① 2문단의 5행에서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설명한 '늣씨'라는 개념은 오늘날 '형태소'와 유사한 개념이며 이는 단어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47. ②

정답의 근거

국어학에서 주시경은 고유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였다고 했다. 그가 도입한 '늣씨'라는 개념은 서양의 블룸필드보다 훨씬 이전이라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국어 연구에 매진한 이유는 서구 언어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언어를 민족 정체성의 징표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연구로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어 교육에도 앞장섰던 것이다.

오답의 근거

① 주시경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국어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고 했다.

③ 주시경은 국어 학자로서만이 아니라, 국어 교육자로서도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언어를 민족 정체성의 징표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4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④ 2문단에 제시되었듯이 그의 연구 업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하거나 엄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과학적 연구 방법이 전무했던 시대에 나온 것이다.

⑤ 주시경은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웠으며 이를 국어 교육을 통해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의 업적들은 '한글 맞춤법'에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근대 국어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적 인물이라 한 것이다.

48. ①

정답의 근거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적 입장이란, 소리보다는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되어도 앞 낱말의 받침이 연음되지 않고 ①에 제시된 '집이', '집을'처럼 그냥 결합된다.

오답의 근거

② 용언이 불규칙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간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기에 형태주의의 사례로 볼 수 없다.
③ 형태주의가 적용된다면 '소나무'는 '솔나무'가 되어야 하며, '바느질'은 '바늘질'이 되어야 한다.
④ '짤막하다'는 '짧다'의 어간 '짧-'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널따랗다' 역시 '넓다'의 어간 '넓-'이 변하였다.
⑤ '마개'는 '막다'의 어간 '막-'이 변하였고, '마감' 역시 '막-'에 '암'이 결합되면서 어간이 변하였다. 즉 형태가 유지되지 않았다.

[한글 표기]

49. ②

정답의 근거

『사성통해』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반절법으로 발음을 표기한 것은 중국의 운서이다.(2문단)

오답의 근거

①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였다. 이를 반절법이라고 불렀다.(1문단)
③ 조선 시대 역관들은 중국의 운서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운서인 『사성통해』를 이용하여 학습했다. "학습자들은 이(사성통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수 있었다." 고 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2문단)
④ 『사성통해』에서의 발음을 한글 [둥]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한글을 발음 기호처럼 활용한 것이다.(2문단)
⑤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것은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다. 한글이 그런 이상적인 발음기호가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3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 ②

정답의 근거

중국의 운서는 두 개의 한자를 이용해 한자음을 표현한다.(1문단) 그러므로 두 개의 발음이 나는 한자는 4개의 한를 이용하면 표현할 수 있고 3개의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6개의 한자를 이용하면 표현이 가능하다.

오답의 근거

① '반절법'은 한자를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하면 초성과 중·종성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알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③ '東'(동)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다른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東'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다는 말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1문단) 일관성이 없어서 학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⑤ 한 글자의 발음을 알기 위해 하나의 발음 기호를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음을 조합해야 하므로 학습하는데 불편했을 것이다.

51. ①

정답의 근거

[고궁이 크다]에서 같은 음으로 표시된 '고'의 'ㄱ' 과 궁의 'ㄱ'이 B에서는 무성음[k]와 유성음[g]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한글은 음소적인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4문단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의 근거

② 한글은 무성음 [k]와 유성음[g]의 다른 소리를 같은 음가인 '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음성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고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고 한다.
③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에서 출현 환경은 어두와 모음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무성음 [k]는 어두에서 소리가 나고 유성음[g]는 모음 사이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므로 출현 환경이 다르다.
④ '고궁이 크다'에서 '궁'의 'ㅇ'은 '[ŋ]'으로 '이'의 'ㅇ'은 무음 '∅'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았다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한 것이 아니라 발음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음성적 차원의 표기이다. 반면 A는 음소적 차원의 표기이므로 B가 표음성이 낮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자, 한글 병기]

52. ①

정답의 근거

2문단에서 '용비어천가'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고 했다. 또한 3문단의 전반부에서 이 책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하였기에 한자를 음의 노출 없이 원문으로만 표기하였다고 했다.

오답의 근거

② '월인천강지곡'은 '용비어천가'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용비어천가'가 한자를 그대로 노출하지만 '월인천강지곡'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로 인해 새로 생겨난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③ 3문단에서 '석보상절'은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기하는 표기 방식을 채택하다고 했는데, 이는 한자를 아는 사람과 한자를 잘 모르고 한글만 아는 사람 모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주된 독자층을 한자를 아는 사람으로 상정하다는 것이다.

④ 4문단에서 '두시언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다고 했는데, 한자를 원문으로만 노출시킨 것은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⑤ 마지막 문장에서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기에 한글로만 표기하다고 했다.

53. ②

정답의 근거

㉠은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과 같지만, 이를 문자로 운용할 때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한글의 발음대로 알파벳을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파벳을 한글로 읽은 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을 단어 그대로 표기한 '런던(London)'이 ㉠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한글과 알파벳을 병행하지 않았다.

③ 한글과 알파벳의 병행을 하 고, <보기>의 표기 조건도 갖추었으나 알파벳이 앞에 있기에 잘못된 것이다.

④, ⑤ 알파벳을 한글과 같이 음절 단위로 끊어 적고 있다. <보기>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54. ②

정답의 근거

㉡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던 동국정운식 표기 방식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기>의 주장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영어의 'file'을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일'로 적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ᇴ'을 만들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 내용을 따르면, 'ᇴ'표기는 국어에 없는 음이다. 여기서 <보기>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면 외국어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호들을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③ 부가적인 기호가 개발되어 쓰인다면 원음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 발음은 자연스럽기 통일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표기하는 것이 국어의 문자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표기에 적응해야 하고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음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⑤ 새로운 음으로 영어를 표기하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음은 아무래도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어원 탐구]

55. ⑤

정답의 근거

(마)의 중심 화제는 '어원 연구의 방법', 또는 '어휘 체계를 통한 어원 연구'이다.

56. ②

정답의 근거

(가)의 뒷부분 '~전통적 어원 연구는 어쭙지않은 한자 지식에 기댄 것이었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찾아야 한다. '우레'는 한자어 '우뢰(雨雷)'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울(어근)+에(접사)>우레'로 된 우리말이다. 즉, '우레'를 한자어 '우뢰(雨雷)'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어원 연구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의 근거

① '개(犬)'의 어원을 '가이'에서 찾은 것은 한자에서 찾은 것이 아니므로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한자의 지식에 기댄 어원 연구와는 거리가 먼 잘못된 표기 교정에 관한 설명이므로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품위 있는 표현과 관련된 예로 어원 연구의 예와 거리가 멀다.

57. ⑤

정답의 근거

ⓜ은 오히려 날짜 명사가 수사에서 유래되었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즉, '어원적으로 보면 날짜 명사는 수사에 '올/을'을 결합시킨 것에서 유래되었다.'라고 고쳐야 적절하다.

오답의 근거

① 뒤에 이어진 '대개 어쭙지않은 한자의 지식에 기댄 것'과는 반대되는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 'ㄱ'이다. 그러니 ㄱ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다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권덕규는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인명 표기와 지명 표기를 예를 들어 고대어 '시내'를 재구하였다.

③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원 연구는 ~ 믿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국어의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고대에 단일형이었다는 내용이 뒷받침 되어야 'ㄹ'에서의 추측이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58. ②

정답의 근거

ⓐ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음을 뜻하므로 '산재'와 가장 가까운 의미이다.

오답의 근거

① 개재(介在) : 사이에 끼어 있음

③ 실재(實在) : 실제로 존재함

④ 잠재(潛在) : 속에 숨어 있거나 잠기어 있음

⑤ 편재(偏在) :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음

59. ①

정답의 근거

'하루'의 어원을 재구하는 과정은 어떤 사실들이 지닌 인과 관계를 인식하여 그 원인이나 결과를 추리해 내는 2단계의 인과적 귀납 추론 과정을 거쳤다. ①의 추론도 상어 배 속의 고등어, 고등어 배 속의 새우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통해 2단계의 추론 과정을 거쳤다.

[어휘 변천]

60. ⑤

정답의 근거

이 글은 국어 어휘의 다양한 변화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휘가 변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감상은 이 글의 내용에서 이끌어 내기 어렵다.

오답의 근거

① 제목인 '국어 어휘의 변화'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어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배경 지식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로 볼 수 있다.

③ 글에 제시된 주요 어구를 파악하고 있다.

④ 본문의 내용은 크게 어휘 체계와 어휘 의미의 변화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하였으므로 적절한 선지로 볼 수 있다.

61. ③

정답의 근거

ⓐ의 앞 뒤 내용을 보면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일본어들이 우리말에 들어왔었으나 정리 작업을 통해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리'는 ⓒ에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 ⑤

정답의 근거

중세 국어에서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의미로 현대 국어에서는 '어리다'의 의미로 쓰인다. 중세 국어 시대의 인물인 '구중세'가 '어리다'를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 쓴 것은 잘못된 대사로 볼 수 있다.

오답의 근거

① 중세 국어에서 '계집'은 일반적인 여자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대사로 볼 수 있다.

② 현대 국어에서 '계집'은 비속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③ 중세 국어에서 '영감'은 당상관에 해당하는 벼슬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④ 현대 국어에서 '어리다'는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한 대사로 볼 수 있다.

63. ③

정답의 근거

제시된 글에는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는 은어, 비속어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윗글에 관한 발표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한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의 근거

① 3문단에 중세 국어의 문헌들에 현대 국어에 잘 쓰이지 않는 고유어들이 발견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고유어에 대한 내용을 발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본문에 따르면 단어의 의미는 변하는데 그 중 원래의 의미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어휘를 찾아 발표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본문을 통해 우리 어휘에는 고유어 외에 한자어와 서구 외래어가 많다는 것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유어-한자어-서구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 국어 어휘의 삼중 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 예를 찾아 발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 양상까지도 읽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 제시된 어휘 변화의 양상을 통해 읽어 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 양상을 발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어휘 변천]

64. ⑤

정답의 근거

(가)는 국어의 어휘상의 특질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글이고, (나)는 우리말의 특징을 고려해 우리말을 표현력이 더욱 풍부한 언어로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글이다. 즉 (나)는 (가)와 관련된 글이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가)와 (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⑤에 해당한다.

65. ②

정답의 근거

마지막 문단을 통해보면 '사전에서 방언이나 옛말을 찾아 쓰는 것은 어휘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에서 방언이나 옛말을 찾아 쓰는 것은 기존 어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어휘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오답의 근거

① (나)에서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기 위해 외래 요소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의 첫 문단 '우리말의~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④ (가)의 마지막 문단 '상징어는 ~ 감각적인 표현 수단의 하나이다.'를 통해 상징어는 감각적 표현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가)를 통해 생활 양식이나 의식이 변하면 어휘의 특질이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66. ④

정답의 근거

④를 보자. '-이-'나 '-기-'와 같은 접미사를 붙여 사동사를 만드는 것은 합성법이 아니라 파생법에 해당한다.

오답의 근거

① 우리 생활을 반영한 '김치, 된장, 온돌' 등은 언어에 언중의 역사와 생활 문화 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고유어 지면 '매홀'이 한자어 지명 '수성(水城)'으로 바뀌었으므로 지명이 한자어로 바뀐 사례에 해당한다.
③ '캄캄하다-깜깜하다'는 음상의 차이에 의해 분화된 단어로 볼 수 있다.
⑤ 중국 한자음을 우리식 한자음으로 읽은 예에 해당한다.

67. ②

정답의 근거

<예문>의 (　　) 안에는 달빛을 받아 선명해진 달맞이꽃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색채어 분화 원리>의 2를 보면, '샛-'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싯-'은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붙는데, 둘 다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노란'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이니 '샛노란'이 맞는 표현에 해당한다.

[문장 부호]

68. ③

정답의 근거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옛 문헌에 어떤 부호들이 쓰였고,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였던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의 경우와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했지만, 설명의 초점은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에 맞추어져 있다.

오답의 근거

①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변화 과정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옛 문헌에 쓰인 부호가 현대적으로 수용된 것에 관한 내용은 다섯 째 문단에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으나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현대에도 문장 부호가 쓰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 문헌에도 문장 부호가 쓰였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기는 하나,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의의 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69. ④

정답의 근거

㉠은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 주는 부호들이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수고를 덜기 위해 다시 적지 않고 부호로 처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인쇄본보다 손으로 쓴 필사본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한 글의 내용도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의 근거

①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려면 부호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풀이하여 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
② 글자나 어구의 반복을 나타내므로, 문장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③ 동일함을 표시하는 부호가 있다고 해도 띄어쓰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⑤ 글자나 어구의 반복을 나타내므로 글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70. ④

정답의 근거

오늘날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 '(　)'를 이용하듯이, 옛 문헌에서는 '【　】'를 사용하여 보충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셋째 문단에 따르면, <보기>의 ⓓ처럼 단락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를 생략했다고 했으므로, ④는 옳지 않은 반응이다.

오답의 근거

① 오늘날의 쉼표(,)에 해당하는 것이 두점이다.
② 오늘날의 마침표(.)에 해당하는 것이 구점이다.
③ 표제어가 용례로 반복되어 나타날 때는 '−'로 대체했다고 했다.
⑤ 새로운 단위의 예문 같은 것이 시작될 때에는 '○'을 사용했다고 했다.

[현대 문법 - 음운 구조]

71. ②

정답의 근거

2문단에 따르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 받은 후의 음',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들처럼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이 그에 해당한다.

오답의 근거

① 변별적 자질은 본래 음운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변별적 자질을 통해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운적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④ 변별적 자질의 '+/-'는 해당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음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상호 예측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72. ⑤

정답의 근거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각각 'ㅇ'과 'ㅁ'이다. <보기>에 따르면 'ㅇ'과 'ㅁ'은 모두 [+비음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할 수 있다. 즉 비음성이라는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되는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것이다.

오답의 근거

① <보기>에 따르면 A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모두 [-비음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② ㉡의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은 B를 일컫는다. B에 해당하는 'ㅇ, ㄴ, ㅁ'은 모두 [+비음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③ ㉢에 해당하는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ㄴ, ㅁ'이다. 이들은 모두 [+비음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④ 'ㅂ'과 'ㅁ'은 글의 1문단에 따르면 모두 [+양순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현대 문법 - 음운 체계]

73. ③

정답의 근거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소리를 내는 데